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지 형 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로저 쉘터의 가곡집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Op.23》  
분석 연구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박 현 주

로저 쉼터의 가곡집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Op.23》  
분석 연구

지 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박 현 주

# 인 준 서

박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신 인 선.....(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 김 미 영.....(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 지 형 주.....(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킬터(Roger Quilter, 1877-1953)의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Five Shakespeare Songs, Op.23*)를 반주부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킬터는 텍스트를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희곡 『심벨린』(*Cymbeline*), 『좋으실 대로』(*As you like it*),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 『십이야』(*Twelfth Night*)에서 등장인물들에 의해 불리는 노래 중 5개를 발췌하였다.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는 죽은 이의 안식을 기원하는 진혼곡으로,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의 묘사가 대비를 이룬다.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Under the Greenwood Tree*)는 숲에서의 삶을 찬양하는 노래로, 피아노와 성악이 16분음표와 8분음표의 경쾌한 리듬으로 자연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이들을 묘사한다.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It was a Lover and his Lass*)는 따스한 봄날에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곡으로, 피아노에서 독자적인 선율을 연주하여 단순한 리듬으로 이루어진 성악 선율에 서정성을 더한다. 제4곡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Take, O take those lips away*)는 연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여인의 원망과 슬픔이 나타난 노래로, 네 음으로 이루어진 짧은 모티브와 당김 음으로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아냈다.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Hey, ho, the Wind and the Rain*)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광대의 노래로, 익살스러운 리듬과 잦은 템포 변화, 폭넓은 셈여림으로 연극적이고 해학적 면모가 돋보인다.

5곡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의 가곡의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텍스트 선택에 있어 자연과 사랑의 주제를 선호하였으나 죽음과 인생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시의 구조를 반영한 음악적 형식 및 프레이즈 구조가 나타난다. 소박하지만 서정성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선율을 사용하였고 그의 선율은 시의 운율과 강세를 면밀히 담아낸다. 조성 및 화성은 전통적인 어법 안에 머물고 있으며, 전조 및 감7화음, 부속화음, 지속음, 비화성음 등의 사용으로 다양한 색채를 더한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반주부는 첫째,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한 다양한 반주형을 사용한다. 둘째, 피아노만의 독자적인 선율을 사용하여 가사의 내용을 암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성악과 피아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성악의 프레이즈를 반주부가 이어받아 마무리하기도 한다.

본 가곡집을 통해 셰익스피어 시의 음악성과 의미를 섬세히 담아낸 쿨터의 뛰어난 작시법을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반주부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통해 그가 성악과 피아노 성부에 각각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여 작곡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 목 차

논문 개요

표 목차

악보 목차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 II. 작곡가와 시인 및 작품 배경

1. 로저 켈터의 생애 및 음악적 특징
  - 1) 켈터의 생애 및 음악적 경향 ..... 4
  - 2) 켈터 가곡의 특징 ..... 8
2.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해
  - 1)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문학적 특징 ..... 13
  - 2) 켈터와 셰익스피어 ..... 16
3.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작곡 배경 및 출처
  - 1) 『심벨린』 ..... 20
  - 2) 『종으실 대로』 ..... 21
  - 3) 『자에는 자로』 ..... 22
  - 4) 『십이야』 ..... 23

## III.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분석

1.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1) 시의 내용 및 구조 .....	25
2) 곡의 구성 및 분석 .....	27
2.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 <i>Under the Greenwood Tree</i> )	
1) 시의 내용 및 구조 .....	41
2) 곡의 구성 및 분석 .....	42
3.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 <i>It was a Lover and his Lass</i> )	
1) 시의 내용 및 구조 .....	51
2) 곡의 구성 및 분석 .....	53
4. 제4곡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 <i>Take, O take those lips away</i> )	
1) 시의 내용 및 구조 .....	70
2) 곡의 구성 및 분석 .....	71
5.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 <i>Hey, ho, the Wind and the Rain</i> )	
1) 시의 내용 및 구조 .....	78
2) 곡의 구성 및 분석 .....	79
 IV. 결론 .....	 94
 참고문헌 .....	 98
 ABSTRACT(영문초록) .....	 101

## 표 목 차

[표 1] 셰익스피어 시를 가사로 한 쿨터의 작품 .....	17
[표 2]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개요 .....	20
[표 3]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구성 .....	28
[표 4]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구성 .....	43
[표 5]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구성 .....	53
[표 6] 제4곡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구성 .....	71
[표 7]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구성 .....	80

## 악 보 목 차

[악보 1-1]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1-4 .....	29
[악보 1-2]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5-12 .....	30
[악보 1-3]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13-16 .....	31
[악보 1-4]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17-18 .....	32
[악보 1-5]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19-26 .....	33
[악보 1-6]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27-30 .....	34
[악보 1-7]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31-32 .....	35
[악보 1-8]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33-40 .....	36
[악보 1-9]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41-45 .....	37
[악보 1-10]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45-46 .....	38
[악보 1-11]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47-54 .....	39
[악보 1-12]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55-60 .....	40
[악보 1-13]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5-6 .....	40
[악보 2-1]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1-4 .....	44
[악보 2-2]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5-12 .....	45
[악보 2-3]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13-20 .....	46
[악보 2-4]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20-23 .....	47
[악보 2-5]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24-31 .....	48
[악보 2-6]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32-41 .....	49
[악보 2-7]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41-46 .....	50
[악보 3-1]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1-4 .....	54

[악보 3-2]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5-14 .....	56
[악보 3-3]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15-20 .....	57
[악보 3-4]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20-22 .....	58
[악보 3-5]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23-32 .....	59
[악보 3-6]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33-38 .....	60
[악보 3-7]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38-40 .....	61
[악보 3-8]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41-50 .....	63
[악보 3-9]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51-59 .....	64
[악보 3-10]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57-59 .....	65
[악보 3-11]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60-69 .....	67
[악보 3-12]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70-75 .....	68
[악보 3-13]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15-17 .....	69
[악보 3-14]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52-54 .....	69
[악보 4-1]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마디1-2 .....	72
[악보 4-2]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마디3-10 .....	74
[악보 4-3]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마디11-17 .....	76
[악보 4-4]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마디17-21 .....	77
[악보 5-1]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1-5 .....	81
[악보 5-2]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6-10 .....	82
[악보 5-3]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11-17 .....	83
[악보 5-4]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16-18 .....	84
[악보 5-5]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19-23 .....	85
[악보 5-6]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24-30 .....	86
[악보 5-7]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29-31 .....	87
[악보 5-8]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32-36 .....	88

[악보 5-9]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37-43 .....	89
[악보 5-10]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41-45 .....	90
[악보 5-11]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46-50 .....	91
[악보 5-12]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51-59 .....	92
[악보 5-13]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57-62 .....	9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로저 킬터(Roger Quilter, 1877-1953)는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영국 작곡가로 영국 전통 발라드를 계승하여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가곡들을 작곡하였다. 그는 후기 낭만주의적인 화성 및 기법을 사용한 보수적인 작곡 방식을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하였다.<sup>1)</sup> 킬터는 112곡의 가곡을 남겼고 영국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이기를 선호하였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sup>2)</sup>

본 논문에서 연구할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Five Shakespeare Songs, Op.23*)는 셰익스피어 시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가곡집이다. 1919-1921년 사이 작곡되었으며 총 5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5곡은 모두 독립된 형태의 시가 아닌 희곡 작품 내 등장인물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사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곡은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에 따라 각기 다른 개성과 분위기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를 반주부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킬터의 가곡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으며, 2004년 이후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에 대한 석사 논문도 다섯 편 출판되었다.<sup>3)</sup> 그러

---

1) Carol Kimball, 채은희 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하권』 (서울: 형설출판사, 2004), 332.

2) 이에 관해서는 II장 2. (2)에 상세히 다룬다.

3) 박선희,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용선,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최현민, “Roger Quilter의 가곡 Five

나 이들은 모두 성악 선율을 위주로 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뿐 반주부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킬터는 가곡에서 피아노 성부를 단순한 반주 역할을 넘어 성악과 더불어 시의 표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렸다.<sup>4)</sup> 이는 킬터 이전의 영국 가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를 통해 킬터는 영국 가곡의 예술성을 한 차원 높인 작곡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킬터의 가곡에서 피아노 성부가 시를 표현하는 독립된 성부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는 킬터의 섬세한 작시법과 선율적 감각이 잘 드러난 그의 대표작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여 선택하였다. 이 가곡집의 반주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의 가곡에서 피아노 성부가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가곡집을 이루고 있는 각 곡이 단순한 5곡의 나열인지, 혹은 독일 연가곡과 같이 내용적 연관성을 가진 연가곡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려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킬터의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를 분석 연구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킬터의 생애와 음악적 경향을 알아보고 특히 그의 가곡이 갖는 특징을 음악 요소 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시인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최현진,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연주자 관점에서의 음악적 해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남희예,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그 외 필자가 내용의 중요도로 보아 참조한 것으로 다음의 논문이 있다. 최미라, “로저 킬터의 연가곡집 《줄리아에게》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세나, “Roger Quilter의 가곡에 대한 연구 -Seven Elizabethan Lyrics, Op.12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진영, “Roger Quilter의 가곡 <Three Pastoral Songs, Op.22>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 Carol Kimball, 채은희 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하권』, 332.

문학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킬터와 셰익스피어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며 셰익스피어의 시를 가사로 한 킬터의 작품을 도표화하였다. 그 후 가곡집의 작곡 배경과 바탕이 된 희곡 작품의 줄거리, 시가 포함된 장면을 설명하였다.

본론에서는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Under the Greenwood Tree),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It was a Lover and his Lass), 제4곡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Take, O take those lips away),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Hey, ho, the Wind and the Rain)를 분석한다. 먼저 각 시의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위해 킬터 가사의 원문과 번역을 함께 제공하였다. 그 다음 시의 구조와 관련한 곡의 구성을 도표화하였다. 곡의 분석은 성악 선율과 반주부를 나누어 분석하되 반주부에 중점을 두어 선율, 리듬, 화성 등의 음악적 요소가 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곡의 소개에서는 킬터가 사용한 가곡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번역은 국내 단행본들을 토대로 각각 필자가 수정하였다.<sup>5)</sup> 또한 킬터의 텍스트를 셰익스피어 시의 원문과 비교하였는데, 이때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펴낸 셰익스피어 전집을 참고하였다.<sup>6)</sup> 악보를 분석할 때 나오는 음고에 대한 표기는 '미국 음향학 학회'(Acoustical Society of America)에서 추천하는 음이름을 사용하였다.<sup>7)</sup> 분석에 필요한 악보는 부시 앤 혹스(Boosey and Hawkes)에서 펴낸 고성용 악보를 참조하였다.<sup>8)</sup>

5) 번역에 참조한 국내 서적은 해당곡에서 밝힌다.

6) William Shakespeare, *Cymbelin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William Shakespeare, *As You Like It*,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William Shakespeare, *Measure for measur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William Shakespeare, *Twelfth Night, or What You Will*,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7) 송무경, 안소영, 이내선, 『새롭게 배우는 음악이론』 (서울: 심설당, 2015), 19.

8) Roger Quilter, *Five Shakespeare Songs*, (Boosey & Hawkes, 1921).

## II. 작곡가와 시인 및 작품 배경

### 1. 로저 킬터의 생애 및 음악적 특징

#### 1) 킬터의 생애<sup>9)</sup>

##### (1) 유년기 및 청소년기(1877-1900)

킬터는 1877년 11월 1일 영국 남부 해안도시 호브(Hove)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5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에 몸이 약하게 태어나 어머니의 세심한 보호 속에 자랐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음악과 시, 극에 대한 흥미를 드러냈으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적 소양을 길러나갔다. 15세가 되던 1892년 이튼 학교(Eton College)에 입학하였으나 학생들의 육체적 성장을 목표로 체육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졌던 학교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 음악 모임이 생기자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피아노 레슨도 꾸준히 받았다.

이후 어머니 친구의 권유로 1896년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있는 국립 음악대학(Hochschule für Musik)에서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하였다. 첫 두 해 동안 에른스트 엔게서(Ernst Engesser)에게 피아노를, 이반 크노르(Ivan Knorr, 1853-1916)에게 작곡을 배웠다. 킬터는 훗날 크노르의 다른 영국인 제자들, 노만 오닐(Norman O'Neill), 발포어 가디너(Balfour Gardiner,

---

9) 킬터의 생애는 다음을 참조로 정리하였다. Valerie Langfield, *ROGER QUILTER: His Life and Music* (Woodbridge: Boydell Press, 2002); Valerie Langfield, "Quilter, Roger", *Grove Music Online*, <https://doi.org/10.1093/gmo/9781561592630.article.22702>, [2020년 5월 11일 접속]; 최미라, "로저 킬터의 연가곡집 《줄리아에게》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6. 본 장에서는 킬터의 생애를 중요 사건에 따라 4시기로 나누었다.

1877-1950), 시릴 스콧 (Cyril Scott, 1879-1970), 호주 출신 퍼시 그레이저 (Percy Grainger, 1882-1961)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그룹’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모두 빅토리안 발라드<sup>10)</sup>의 계승자로서 각자의 음악적 개성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며 동시대의 음악에 기여하였다.

크노르의 가르침 아래 1897년 첫 가곡 <진홍빛 꽃잎은 이제 잠들고>(Now sleeps the crimson petals)이 탄생하였다. 이 곡은 테니슨(Alfred Tennyson)의 시에 곡을 붙인 2절의 짧은 가곡이며, 1904년 출판되어 쿨터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2) 청년기(1901-1921)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쿨터는 1901년 런던에서 가곡 작곡가로 데뷔한다. 바리톤 덴햄 프라이스(Denham Price)의 리사이틀에서 쿨터의 《4개의 바다 노래들》(*Four Songs of the Sea, Op.1*)이 연주되었다. 이후 그의 가곡은 당대의 유명 성악가들<sup>11)</sup>에게 불려진다. 그 중에서도 게르바스 엘위스(Gervas Elwes, 1866-1921)는 쿨터와 깊은 인연으로 오랜 기간 협업하였다. 그는 영국 출신의 맑은 음성을 가진 테너로, 쿨터는 그의 목소리에 맞춰 《세 개의 노래》(*Three Songs, Op.3*), 《줄리아에게》(*To Julia, Op.8*)를 작곡하였다. 쿨터의 가곡 중 가장 널리 사랑받는 《세 개의 셰익스피어 노래》(*Three Shakespeare Songs, Op.6*)는 엘위스의 노래와 쿨터의 반주로 초연되었다. 쿨터는 그의 노래를 듣고 반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받으며, 자신의 작품이 그의 뛰어난 연주와 해석으로 더 널리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

---

10)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19세기 무렵 영국 상류 사회에서 불리던 센티멘털한 가곡으로 낭송적이고 감상적인 선율진행과 화성, 드물게 나타나는 해학적인 요소가 특징이다. 내용은 전통적인 사랑, 영웅 등에 관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반주가 단순하고 빈약하다.

11) 바리톤 가수인 그린(Harry Plunket Greene, 1865-1936), 오페라 가수인 크로스리(Ada Crossley, 1874-1929), 테너인 코티스(John Coates, 1865-1941) 등이 있다.

였다.

1906년 쾰터는 건강상의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십이지장 궤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몇 달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 이 시기 발생한 건강 문제들이 남은 생애 동안 그를 괴롭혔다. 다우슨(Ernest Dowson, 1867-1900)의 시에 곡을 붙인 《슬픔의 노래》(*Songs of Sorrow*)가 이 시기에 쓰였고 그를 헌신적으로 간병했던 친구들 윌프리트(Wilfrid von Glehn)와 제인 본 글렌(Jane von Glehn)에게 헌정되었다. 다음 해인 1907년 그는 첫 관현악곡 《세레나데》(*Serenade, Op.9*)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어내지만, 작품의 큰 규모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판을 포기하였다. 쾰터는 늘 작품을 완성한 후에도 수정을 거듭하곤 했는데, 이처럼 큰 규모의 작품을 수정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소규모 작품을 위주로 작곡하며 대규모 작품은 쓰지 않는다.

1911년은 쾰터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해였다. 어린이를 위한 요정극 《무지개가 끝나는 곳에》(*Where the Rainbow Ends*)의 부수 음악을 작곡하였고, 이 작품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초연 이후로도 50년 가까이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되었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쾰터는 큰 고통을 받았다. 직업군인이었던 형을 잃었고,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다. 거기에 잦은 병치레로 고생하는 와중에도 그는 작곡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Three Pieces for Pianoforte, Op.16*), 《두 개의 옛 영국 음악》(*Two Old English Tunes*) 등의 피아노 작품이 이 시기 쓰였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장르는 부수음악이었다. 1916년에는 셰익스피어 사망 300주기 공연에서 희곡 『겨울 이야기』(*Winter's Tale*)를 위한 부수음악을 선보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21년에는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희곡 『좋은 대로』의 현대적 상연을 위한 음악을 썼다. 한편 그의 음악적 동반자였던 엘위스가 1921

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켈터는 최고의 해석자를 잃는다.

### (3) 장년기(1922-1937)

1921년 젊은 유대인 바리톤 마크 라파엘(Mark Raphael)을 만나게 되면서 켈터는 남은 생을 함께 할 음악적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라파엘의 연주회에 반주자로 함께했으며, 그의 음색에 어울리는 《5개의 제임스 1세의 노래》(*Five Jacobean Lyrics, Op.28*)를 작곡하여 헌정하였다. 또한 1934년에 라파엘과 함께 17개의 가곡을 녹음하였고, 그 중 6곡이 음반으로 발매되었다.

어릴 적부터 보여 온 극에 대한 관심은 오페라 작곡으로 이어졌다. 1933년 경오페라 《푸른 멧돼지》(*The Blue Boar*)를 선보였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다. 곡들을 수정하고 다시 재편해서 1936년 《줄리아》(*Opera Julia*)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지만 이 역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그의 이름은 가곡 작곡가로 남게 된다.

켈터는 지역사회의 음악 발전을 위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0년대부터 1938년까지 우드브릿지 음악 축제(Woodbridge Music Festival)의 단장으로 있었고, 1932년부터 사망하기까지 우드브릿지 오케스트라 단장을 역임했다. 이러한 헌신으로 그는 지역사회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았다. 또한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였으며, 1930년대 오스트리아를 탈출하는 유대인들을 물질적으로 돕기도 했다. 켈터는 동성애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작곡가로서 부족한 자신감, 건강하지 못한 육체로 인해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았지만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갈망이 늘 있었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살았다.

#### (4) 노년기(1938-1953)

60대에 접어든 쾰터는 오페라 《줄리아》의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옆친 데 댁친 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조카 아놀드(Arnold Guy Vivian)를 잃게 된다. 아놀드는 미성의 테너로 쾰터의 노래를 즐겨 부르곤 했다. 가장 가까이 지내며 아꼈던 조카였기에 쾰터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으며, 이후 정신 질환을 앓게 된다. 아놀드와 함께 부르길 고대하며 작곡한 《아놀드의 오래된 노래책》(*The Arnold Book of Old Songs*)은 끝내 불리지 못한 채 1947년부터 1951년에 걸쳐 출판되었다. 이 가곡집은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프랑스의 민요, 전통 가곡을 편곡한 16개의 곡으로 구성되었다.

쾰터는 관절염과 전립선 수술의 후유증,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평온하지 못한 노년기를 보냈다. 그럼에도 기존 작품들을 편곡하고 새로운 가곡들을 작곡하는 등 창작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75세 생일을 기념하는 연주회가 열린 이듬해, 1953년 9월 21일 런던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유해는 성모 마리아 교회(St. Mary's Church) 가족묘지에 안장되었다.

#### 2) 쾰터 가곡의 특징

쾰터는 기악곡, 합창곡, 부수 음악을 포함하여 160여 개의 작품을 남겼으며 그 중 가곡은 112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1897년 첫 가곡 〈진홍빛 꽃잎은 이제 잠들고〉를 쓴 이후로 생애 모든 시기에 꾸준히 가곡을 작곡하였다. 그를 대표하는 작품들은 1905년에서 1925년 사이 20년 동안에 쓰였다. 그는 말년까지 계속해서 가곡을 써냈지만 초기 작품들에 견줄 만한 성공작은 나오지 않았다. 쾰터 가곡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다채로운 화성, 성부 진행의 복잡함(complexity of part-writing), 섬세한 짜임새, 성악과 피아노의 긴밀한 상

호작용 등이 있다.<sup>12)</sup> 그의 가곡들은 시기에 따른 변화나 특징 없이 일관된 성격을 유지한다.

그는 젊은 시절 독일에서 공부하였지만 그의 음악은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이 많이 드러난다. 그의 가곡 대부분이 영국 시인들의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 민요적인 선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는 낭만주의적 조성 체계 위에 영국적 색채를 더해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만들었다. 또한 쿨터는 프랑스 작곡가 포레(Gabriel Fauré, 1845-1924)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친구 그레이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포레의 음악은 매우 감각적이면서도 열정적이며 그 표현이 매우 명료하고 사랑스럽다고 언급하는 등 포레의 음악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조성감을 잃지 않고 조성의 틀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한 점, 선법적인 선율 및 화성을 활용해 곡에 색을 입힌 점, 유려하게 흐르는 선율을 작곡에서 늘 추구하며 선율과 화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등의 포레 가곡 특징들이 쿨터의 가곡에서 나타난다. 쿨터 가곡의 특징을 텍스트, 선율, 조성 및 화성, 형식 및 구조, 반주부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텍스트

쿨터는 시 선택에 매우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세련된 테크닉, 섬세한 감수성, 우아한 리듬과 이미지를 가진 시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시인들은 영국의 17세기와 19세기 시인들이었다.<sup>13)</sup> 17세기 시인들로는 셰익스피어, 헤릭(Robert Herrick, 1591-1674) 등이 있으며, 쿨터는 이들 작품 속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기발한 비유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었다. 그를 대표하는 가곡들은 대부분 17세기 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쿨터는 동시대를 살았던 19세기 시인들의 작품에도 곡을 많이 붙였는데, 셸리(Percy Bysshe Shelly, 1792-1822),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1892) 등이 있

---

12) Valerie Langfield, *ROGER QUILTER: His Life and Music*, 111.

13) Valerie Langfield, *ROGER QUILTER: His Life and Music*, 164-165.

다. 18세기 시인들은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를 제외하고 거의 다루지 않았다.

퀼터가 주로 선택한 주제는 사랑과 자연으로, 특히 자연이 주제일 때는 새와 꽃이 많이 등장한다.<sup>14)</sup> 그 외에 애국심, 고향, 소박한 감정 등의 주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영국에서 유행했던 발라드 장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 (2) 형식 및 구조

퀼터의 가곡은 시 구조에 따라 통작형식, 변형된 유절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선율, 화성, 박자, 반주형이 가사에 맞게 조금씩 변모하여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더한다. 표면적으로는 낭만주의적 성향의 균형적인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균형적 구조가 나타난다. 이는 시를 음악으로 옮기는 데 있어 음악적 형식을 가사와 완전히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슈베르트, 슈만의 가곡에서 보여지는 균형적 구조를 가진 낭만주의 가곡의 형식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 (3) 선율

선율은 퀼터 가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의 선율은 서정성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화려한 장식이나 기교가 있는 선율 대신 단순하면서도 유려한 선율들을 통해 청자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는 성악 선율에 복잡하지 않은 리듬을 사용하여 시의 의미 전달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선율의 구조는 시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 또한 선율은 시의 운율과 강세를 세심하고 면밀하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쓰여 선율을 통해 낭송할 때의 역량이 시만 읽었을 때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하였다.

14) Valerie Langfield, *ROGER QUILTER: His Life and Music*, 165.

15) 김세나, "Roger Quilter의 가곡에 대한 연구-Seven Elizabethan Lyrics, Op.12를 중심으로," 68.

#### (4) 조성 및 화성

퀼터는 조성 및 화성에 있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시대 작곡가들이 12음 기법, 무조음악 등 조성 체계를 벗어나기 위한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화성어법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그는 전통적인 조성 체계 안에 머물면서 20세기의 기법들을 다소 적용하고 있다. 이는 퀼터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려야했던 동시대인들에게 편안하고 위로를 주는 음악 스타일을 추구한 데서 기인한다. 그는 극단적인 비화성음이나 부속화음의 사용을 자제하였고 깨끗한 울림을 가진 온음계적 화성을 선호했다. 3·7 화음이 주로 사용되며 감화음과 부속화음도 자주 나타난다. 증4도, 선법, 잦은 전조를 사용하거나 V화음에서 I화음으로 가는 화성적 해결을 지연하는 등<sup>16)</sup> 화성의 색채들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의 화성은 선율과 매우 밀접하게 쓰여 가사의 의미와 분위기를 충실히 표현한다.

#### (5) 반주부

피아노 선율은 복잡하지 않지만 기교적인 면에서 많은 테크닉을 필요로 한다.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반주 형태를 사용한다. 퀼터의 음악적 동반자였던 바리톤 마크 라파엘은 퀼터 가곡의 피아노는 풍부한 화성에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리드미컬하여 피아니스트들의 흥미를 자아낸다고 하였다.<sup>17)</sup>

퀼터의 가곡에서 반주부는 가창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두 성부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미처 끝내지 못한 성악 선율을 피아노가 이어받아 마무리하기도 한다. 또한 피아노 성부에서 독자적 선율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피아노는 가곡의 목적인 시의 표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6) 김진영, "Roger Quilter의 가곡 <Three Pastoral Songs, Op.22>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16-17.

17) Mark Raphael, *Roger Quilter: 1877-1953, the Man and His Songs*, (Tempo, 1953-4), Vol.30, 20.

다. 이러한 점은 독일 가곡에서는 슈만 이래로 대부분의 가곡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쿼터만의 두드러지는 점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쿼터 이전의 영국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에서는 쿼터 직전 시대에 빅토리안 발라드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여기서 피아노는 동일한 코드를 반복하는 등 매우 간단하고 즉흥적인 반주 형태가 대부분으로 단순한 반주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쿼터는 빅토리안 발라드를 계승하면서도 피아노의 역할을 성악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시의 표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독립된 성부로 작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영국 가곡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2.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해

### 1)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문학적 특징<sup>18)</sup>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엘리자베스 I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중반,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 스트랫포드 어펜 에이븐(Stratford-upon-Avon)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John Shakespeare)는 가죽가공업과 장갑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1557년 부유한 농부의 딸 메리 아든(Mary Arden)과 결혼했다. 이들 사이에서는 8남매가 태어났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 중 셋째였다. 그는 1564년 4월 26일에 유아세례를 받았고 이를 통해 그의 탄생일은 4월 23일이었을 것이라는 데에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스트랫포드는 인구 2천 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극작가로 자리매김할 기본적인 토양을 제공해주었다. 그는 일찍이 수업료 면제학교에 다니며 성경과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11세부터는 스트랫포드 문법학교(Stratford Grammar School)에 진학하여 문법과 논리학, 수사학, 문학 등을 공부했다. 이 중 성경과 오비디우스의 『변신』은 셰익스피어의 마음을 특히나 더 사로잡았으며, 훗날 그의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마을에는 순회 연극 공연단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어린 셰익스피어가 다양한 연극들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문학적 소양과 연극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8세가 되던 해인 1582년, 셰익스피어는 이웃 마을 농부의 딸인 8년 연상의 앤 해서웨이(Ann Hathaway)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5월에 첫째 딸

---

18) 본 장에서 설명하는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문학적 특징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대석, 『셰익스피어 극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41-47; William Shakespeare, 김종환 역 『자에는 자로』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236-237.

수잔나(Susanna)가 태어났고, 1585년에는 쌍둥이 햄넷(Hamnet)과 주디스(Judith)가 태어났다. 하지만 갖 태어난 자식들을 두고 그는 어떠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고향을 떠나 7-8년 간 이곳저곳을 떠돌게 된다.<sup>19)</sup> 그 기간 동안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후 그의 이름은 1590년 경 런던 극장가에서 발견된다. 그는 런던에 정착하여 극작가 겸 배우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당시 런던은 연극에 뜻을 둔 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도시였다.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가 온통 북적이며 활기 넘쳤는데,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도 그만큼 활발했다. 특히 연극의 인기가 높아 도시 이곳저곳에서 자주 공연되었다. 셰익스피어는 극작가로서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Titus Andronicus*), 『헨리 6세』, 『리처드 3세』,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의 초창기 작품들을 선보였고, 좋은 반응과 함께 그의 인지도와 명성이 쌓이기 시작했다.

1594년까지 그는 세 개의 극단에 속해 있으면서 작품을 썼다. 하지만 1593년부터 창궐한 페스트의 영향으로 극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는 희곡 대신 두 편의 장시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크레티아의 능욕』을 썼다. 상황이 좀 나아지자, 1594년에 동료 배우들과 함께 ‘시종장관 극단’(The Lord Chamberlain’s Men)이라는 새로운 극단을 설립하게 된다. 이 극단은 리처드 버비지(Richard Burbage)와 같은 뛰어난 연출가를 영입하여 급성장하였고, 1599년에는 전용 극장인 ‘글로브 극장’(The Globe Theatre)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1603년 새로 즉위한 제임스 1세의 후원 아래 ‘국왕 극단’(The King’s Men)으로 명칭을 바꾸고 더욱 승승장구하였다.

1613년 경 은퇴할 때까지 20여년을 극장가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는 어떠한 정치적 다툼이나 동료 간의 갈등 없는 조용한 삶을 보냈다.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 극작가, 벤 존슨(Ben Jonson)이나 동료배우였던 헤민지즈(Heminges),

---

19) 그 이유로는 유랑 극단의 단원으로 뽑혀 떠났다는 설, 이웃의 사슴 한 마리를 훔치고서는 처벌이 두려워 떠났다는 설이 있지만 모두 근거가 불분명하다.

콘델(Condell) 모두 그를 ‘점잖은’(gentle) 사람으로 묘사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셰익스피어는 온건한 기질에 균형 잡힌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1613년 경 펜을 완전히 내려놓고 고향 스트랫포드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3년 후인 1616년 4월 23일,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1590년에서 1613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남긴 작품들은 로마극을 포함한 10편의 비극, 17편의 희극, 10편의 역사극, 총 37편의 희곡과 그 외에 2편의 장시, 154개의 소네트가 있다. 희극과 비극 모두에서 비교적 고르게 걸작을 남겼으며, 그가 창조한 인물들은 입체감 있고 사실적인 묘사로 당대뿐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사랑받았다. 그의 작품세계의 중심이 되는 희곡 37편을 상연 연대에 따라 4시기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제1기(1590-1594)는 습작기로, 기존 작품들을 바탕으로 모방과 실험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극과 희극을 주로 집필하였다. 『리처드 3세』,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당시 호평을 받았고, 그 외에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 『헨리 6세』, 『베로나의 두 신사』 등이 있다.

제2기(1595-1600)는 성장기로, 희극과 비극, 역사극 등 모든 장르에 탁월한 극작가로서 명성을 쌓는 시기이다. 『좋은실 대로』, 『십이야』, 『한여름 밤의 꿈』 등의 낭만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포함한 희극 작품들, 『헨리 5세』, 『헨리 4세』 같은 역사극, 그리고 첫 본격적인 비극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등이 이 시기에 상연되었다.

제3기(1606-1608)는 원숙기 또는 절정기로, 문제극으로 분류되는 『자에는 자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비극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 등과 함께 그를 대표하는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의 4대 비극이 이 시기에 쓰였다.

제4기(1608-1613)는 그가 로맨스 극<sup>20)</sup>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시도한 시기

---

20) 비희극 또는 희비극이라고도 하며 전통적 극 형식인 비극과 희극의 형식과 주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연극을 말한다.

로, 『심벨린』, 『겨울이야기』, 『폭풍』가 이에 해당한다. 역사극 『헨리 8세』가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 2) 쿨터와 셰익스피어

쿨터는 여러 영국 시인들 중에서도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텍스트로 많이 다루었다. 쿨터의 가곡 중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바탕으로 쓴 곡은 4편의 가곡집(Op.6, Op.23, Op.30, Op.32)을 포함해서 총 19곡으로, 전체에서 약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는 동시대의 그 어느 작곡가보다 많은 수이다. 또한 셰익스피어 가곡은 쿨터의 생애에서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셰익스피어가 어떤 시인보다도 쿨터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쿨터가 셰익스피어를 특별히 더 많이 선택한 이유는 먼저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들 수 있다. 쿨터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곡을 붙일 때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의 작품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의해 충분히 인정받아 시의 예술적 수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sup>21)</sup> 또 다른 이유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음악으로 재창조되기에 매우 유리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희곡은 산문과 운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운문의 형태는 낭송할 때에 운율이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에 선율을 붙이기에 적절했다. 그리고 그의 희곡에는 야외 공연에서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노래로 불리는 부분이 삽입되어있다. 이 노래들은 첫 인쇄본에 한 구절 또는 하나의 시가로 실려 남아있으며 구전으로도 전해져 쿨터를 포함한 많은 작곡가들에게 자연스럽게 영감을 제공하였다.<sup>22)</sup>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드러났던 극에 대한 흥미가 그를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눈길이 가도록 이끌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어 낭독에 조예가 깊었던 그

21) Valerie Langfield, *ROGER QUILTER: His Life and Music*, 124.

22) Ross W. Duffin & Stephen Orgel, *Shakespeare's songbook* (New York: W.W. Norton, 2004), 5.

에게 있어 셰익스피어의 섬세하고 묘사가 뛰어난 시어들은 음악적 상상력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또한 『겨울 이야기』, 『좋으실 대로』 등 셰익스피어 작품의 부수 음악을 여러 차례 작곡할 기회가 주어졌던 사실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셰익스피어 시를 가사로 한 쿼터의 작품<sup>23)</sup>

작곡 연도	출판 연도	곡 명	출 처
1905	1906	《3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 <i>Three Shakespeare Songs</i> , Op.6) 1. <오라 죽음이여> ( <i>Come away, death</i> ) 2. <오 나의 그대여> ( <i>O Mistress mine</i> ) 3. <불어라, 불어라, 그대 겨울바람아> ( <i>Blow, blow, thou winter wind</i> )	1. 『십이야』 2막 4장 2. 『십이야』 2막 3장 3. 『좋으실 대로』 2막 7장
1919 - 1921	1919 - 1921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 <i>Five Shakespeare Songs</i> , Op.23) 1.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 <i>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i> ) 2. <푸른 숲 나무 아래> ( <i>Under the Greenwood Tree</i> ) 3.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 <i>It was a Lover and his Lass</i> ) 4.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 <i>Take, O take those lips away</i> ) 5.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 <i>Hey, ho, the Wind and the Rain</i> )	1. 『십이야』 4막 2장 2. 『좋으실 대로』 2막 5장 3. 『좋으실 대로』 5막 3장 4. 『자에는 자로』 4막 1장 5. 『십이야』 5막 1장
1926, 1933	1933	《4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 <i>Four Shakespeare Songs</i> , Op.30)	

23) 셰익스피어 시를 가사로 한 쿼터의 작품과 출처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Valerie Langfield, *ROGER QUILTER: His Life and Music*, 292-302. 도표의 한글 곡명은 국내의 논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수정하였다. 구보람, “셰익스피어 시에 의한 로저 쿼터와 에이미 비치의 가곡 비교 연구: <O mistress mine>과 <Take, o take those lips away>를 중심으로,” 28-29; 문새롬, “Roger Quilter의 가곡 연구 <Three Shakespeare Songs> Op.6 중심으로,” 8-12.

		1. <누가 실비아인가?> ( <i>Who is Sylvia?</i> ) 2. <나팔수선화가 보일 때> ( <i>When daffodils begin to peer</i> ) 3.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알까요?> ( <i>How should I your true love know?</i> ) 4. <아가씨, 더 이상 한숨 쉬지 마세요> ( <i>Sigh on more, ladies</i> )	1. 『베로나의 두 신사』 4막 2장 2. 『겨울이야기』 4막 3장 3. 『햄릿』 4막 5장 4. 『헛소동』 2막 3장
1938	1939	《2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 <i>Two Shakespeare Songs, Op.32</i> ) 1. <류트를 가진 오르페우스> ( <i>Orpheus with his lute</i> ) 2. <고드름이 벽에 매달리며> ( <i>When icicles hang by the wall</i> )	1. 『헨리 8세』 2. 『사랑의 헛수고』 5막 2장
1945	1946	<잘 들어라, 종달새야!> ( <i>Hark, hark, the lark!</i> )	『심벨린』 2막 3장
1946	1951	<이 노란 모래사장으로 오세요> ( <i>Come unto these yellow sands</i> ) <멋진 브레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 <i>Tell me where is fancy Bred</i> )	『폭풍』 1막 2장 『베니스의 상인』 3막 2장
1942	출판 되지 않음	<다섯 길 깊이> ( <i>Full fathom five</i> ) <벌이 먹는 곳에서> ( <i>Where the bee sucks</i> )	『폭풍』 1막 2장 『폭풍』 5막 1장

### 3.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작곡 배경 및 출처

퀸터의 가곡집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사용한 퀸터의 두 번째 작품집이다. 각 곡은 1919-1921년 사이에 작곡되어 1921년 한 세트로 출판되었다. 모두 셰익스피어의 여러 희곡 작품들의 시를 가사로 사용하였다. 이 시들은 각기 다른 장면에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각 곡 사이에 내용적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가곡집 전체로 보았을 때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히 살라’는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고 있어 연가곡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는 1921년에 쓰였으며, 희곡 『심벨린』(*Cymbeline*)의 시를 가사로 하였다. 그 해 퀸터의 친구이자 유능한 학자였던 로빈 홀웨이(Robin Hollway, 1894-1921)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작곡하여 그에게 헌정하였다.<sup>24)</sup>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와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는 퀸터가 1919년 『좋으실 대로』(*As You Like It*)의 현대적 상연을 위한 음악을 위촉받은 것을 계기로 작곡하였다. 이 두 곡은 1919년에 Op.6의 제3곡 〈불어라, 불어라, 그대 겨울바람아〉와 함께 《가곡집 ‘좋으실 대로’》(*Songs from ‘As You Like It’*)로 먼저 출판되었다가 2년 뒤 Op.23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래 소프라노와 테너의 듀엣 곡으로 작곡된 제3곡은 테너 성부 전체를 생략하고 독창곡으로 수정되었다. 이 두 곡은 모두 그의 절친했던 가수이자 배우 월터 크레이튼(Walter Creighton)에게 헌정되었다. 제4곡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는 1921년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들어졌다. 이 곡은 퀸터가 일평생 가까이 지냈던 예술 복원가 란츠버그(A.C. Landsberg)에게 헌정되었다.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는 1919년

24) Valerie Langfield, *ROGER QUILTER: His Life and Music*, 126-127.

에 『십이야』(*Twelfth Night*)를 바탕으로 쓰였으며, 제2, 3곡과 마찬가지로 월터 크레이튼에게 헌정되었다.

[표 2]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개요

곡 순서	작곡연도	시의 출처	헌정
제1곡	1921	『심벨린』 4막 2장	로빈 홀웨이
제2곡	1919	『좋은실 대로』 2막 5장	월터 크레이튼
제3곡	1919	『좋은실 대로』 5막 3장	월터 크레이튼
제4곡	1921	『자에는 자로』 4막 1장	A.C. 란츠버그
제5곡	1919	『십이야』 5막 1장	월터 크레이튼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는 희곡을 바탕으로 한 만큼 각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장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각 희곡의 간략한 줄거리와 시가 속한 장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sup>25)</sup>

#### 1) 『심벨린』

제1곡은 희곡 『심벨린』의 노래를 가사로 하고 있다. 『심벨린』은 1609년 혹은 1610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셰익스피어의 두 번째 로맨스 극이다. 5막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벨린 왕과 로마(Rome)와의 관계, 이모진(Imogen)의 순결에 대한 내기 그리고 벨라리어스(Belarius)의 추방, 이 세 개의 플롯이 복잡하고도 정교하게 얽혀 있다.

『심벨린』의 간략한 줄거리는 이러하다. 브리튼 왕 심벨린에게는 두 아들과 공주 이모진이 있는데, 두 왕자는 20년 전에 충신이었던 벨라리어스에 의해 유괴되었다. 공주 이모진은 왕 몰래 평민 남자와 결혼하였다가 왕의 분노를

25) 작품 제목, 인명, 지명 등의 번역은 모두 한국셰익스피어학회, 『셰익스피어 연극 사전』(서울: 동인, 2005)을 참조하였다.

사 헤어지게 된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남장을 하고 떠나는데, 그 뒤를 새 왕비의 아들 클로튼(Cloten)이 해칠 생각으로 뒤쫓는다. 산 속에서 헤매던 이모진은 동굴에서 살아가던 오빠들, 두 왕자를 만나게 되고, 클로튼은 왕자에게 죽임 당한다. 이후 로마군이 브리튼을 침입해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왕자와 벨라리어스는 로마군에 붙잡힌 왕을 구출하는 등의 공을 세운다. 왕은 잃어버린 두 아들을 되찾게 되고 이모진도 남편과 재회하며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컬터는 4막 2장에서 심벨린 왕의 두 아들 아비라거스(Arviragus)와 기데리어스(Guidarius)가 부르는 시에 곡을 붙였다. 클로튼은 공주 이모진의 뒤를 쫓다가 벨라리어스와 두 왕자가 숨어 살고 있는 동굴에 다다르고, 기데리어스 왕자와 결투를 벌이다 목숨을 잃는다. 비록 적이지만 왕족의 예를 갖추어 묻어주자는 벨라리어스의 말에 두 왕자는 넋을 달래는 노래를 부른다.

## 2) 『종으실 대로』

제2곡과 제3곡은 『종으실 대로』를 바탕으로 지어졌다.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에 속하는 『종으실 대로』는 1599-1600년 경 집필되었고, 5막 22장으로 되어 있다. 목가적 전원을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 문제를 다룬 낭만 희극이지만 형제간의 갈등, 염세주의 등의 자못 심각한 요소도 다루고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 공작(Duke Senior)은 동생 프레드릭(Frederick)에게 권좌를 빼앗기고, 자신을 추종하는 귀족들과 아든(Arden) 숲에서 살고 있다. 전 공작의 딸 로잘린드(Rosalind)는 궁전에 남아 살아가다가 귀족 청년 올란도(Orlando)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프레드릭 공작에 의해 로잘린드는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버지가 있는 아든 숲으로 향한다. 올란도도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게 쫓

겨 숲에 이르게 되는데, 남장을 한 로잘린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을 열렬히 토로한다. 올란도는 숲에서 잠이 든 형을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다. 이 모습을 본 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 프레드릭 공작은 전 공작 일행을 토벌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왔다가 노수도사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이렇게 두 형제가 서로 용서와 화해를 하고, 로잘린드와 올란도가 결혼하며 극이 마무리된다.

제2곡은 2막 5장에서 에이미언즈(Amiens)가 부르는 시를 가사로 한다. 에이미언즈는 권력을 찬탈당하고 아든 숲에서 살아가는 전 공작의 부하이다. 그는 숲 한가운데서 동료들과 함께 아든 숲에서의 생활이 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이들의 노래는 우울한 염세주의자 제이키즈(Jaques)에 의해 풍자되는데, 제이키즈는 안락한 궁정 대신 가혹한 숲을 택한 그들을 바보라며 비꼰다.

제3곡은 5막 3장에서 두 시동(Pages)의 노래를 가사로 사용하였다. 어릿광대 터치스톤(Touchstone)과 그를 짝사랑해온 시골 처녀 오드리(Audrey)는 다음 날 올릴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 앞에 추방당한 공작의 두 시동이 나타나자 터치스톤은 그들에게 노래를 청한다. 시동들은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들려준다.

### 3) 『자에는 자로』

제4곡은 『자에는 자로』의 노래를 가사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1604년에 제임스 1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왕 극단이 궁정 무대에 올린 5막 17장의 희곡이다.<sup>26)</sup> 행복한 결말을 맺는 희극이면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법, 정의, 권력 등으로 무게감 있고 ‘잠자리 바꿔치기’(Bed Trick) 같은 선정적 요소가

---

26) William Shakespeare, 김종환 역, 『자에는 자로』, 221.

포함되어 문제극으로 분류된다.

간략한 줄거리는 이러하다. 공작 빈센티오(Vincentio)는 앤젤로(Angelo)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수도승으로 변장하여 도시 곳곳을 살핀다. 앤젤로는 관대했던 공작과 달리 법을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하여 혼전에 약혼녀를 임신시킨 클로디오(Claudio)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클로디오의 여동생 이사벨라(Isabella)가 앤젤로에게 찾아가 클로디오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한다. 앤젤로는 클로디오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이사벨라와의 하룻밤을 요구한다. 망설이는 그녀에게 공작이 계락을 알려준다. 그녀 대신 앤젤로가 버린 약혼녀 마리아나(Mariana)를 보내 오빠의 목숨과 그녀의 순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앤젤로는 마리아나를 이사벨라로 착각하고 동침한다. 그러나 앤젤로는 약속을 저버리고 클로디오의 신속한 처형을 명한다. 이를 지켜본 공작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형을 멈추고 앤젤로의 악행을 밝힌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앤젤로를 공작은 용서하고, 마리아나와 결혼하도록 한다.

제4곡은 4막 1장 첫머리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하였다. 4막이 시작되면 마리아나가 살고 있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그녀와 한 소년이 등장한다. 소년은 마리아나의 마음을 대신하여 사랑에 배신당한 여인의 마음이 담긴 노래를 부른다.

#### 4) 『십이야』

제5곡의 바탕이 되는 『십이야』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에서도 최대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sup>27)</sup>으로, 창작 시기는 1601년으로 추정된다. 기악 음악으로 시작하여 광대 페스테(Feste)의 노래로 끝나며, 3, 4, 5막은 페스테의 음악과 재담으로 시작하는 등 셰익스피어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 음악과 긴밀한 관계

---

27) 신정옥, 『셰익스피어 한국에 오다』 (서울: 백산출판사, 1998), 348.

를 맺고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쌍둥이 남매 세바스찬(Sebastian)과 바이올라(Viola)는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에 난파당해 서로 떨어진 채 낯선 이국 땅에 상륙한다. 먼저 도착한 바이올라는 남장을 하고 올시노(Orsino) 공작의 하인이 되어 살아간다. 바이올라는 공작을 사랑하게 되지만, 올시노 공작은 올리비아(Olivia)라는 여인을 오랫동안 연모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리비아가 남장한 바이올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만다. 이후 또 다른 쌍둥이 세바스찬도 같은 곳에 도착하는데, 올리비아는 그를 바이올라로 착각해 청혼한다. 세바스찬은 아름다운 올리비아의 청혼에 곧장 결혼식을 올린다. 공작은 하인에게 사랑을 빼앗긴 줄 알고 배신감에 분노한다. 하지만 쌍둥이 남매의 사연이 밝혀지면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공작은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바이올라에게 청혼한다.

컬터는 5막 1장, 모든 인물이 떠나고 페스테만이 무대에 홀로 남아 부르는 에필로그에 곡을 붙였다. 이 시는 사실상 극의 내용이나 주제와 상관없이 극을 마무리 짓고 관객으로 하여금 극 속에서 현실 세계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오랜 민요풍의 노래는 걱정 근심 없던 어린 시절이 지나가버린 데 대한 애도와, 날마다 ‘바람 불고 비 오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체념의 어조가 깔려 있다.<sup>28)</sup>

---

28) 진남수, “십이야의 광대, 페스테의 인물 특성 연구,” 『연극학보』 28 (2001), 215.

### Ⅲ.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 분석

#### 1.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 1) 시의 내용 및 구조

제1곡은 희곡 『심벨린』 4막 2장에서 두 왕자가 부르는 노래이다. 기데리어스 왕자는 원수 클로튼을 죽이고 동생 아비라거스와 그의 시신을 묻으며 이 노래를 부른다. 따라서 이 노래는 망자의 넋을 달래고 안식을 기원하는 진혼곡이다. 1연에서는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2연에서는 인간 삶의 모든 문제가 죽음 앞에 허망함을 이야기한다. 3연에서는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 또한 죽음 앞에서는 허망한 것이라 하고 있으며, 4연에서는 죽은 이를 완전히 떠나보내며 안식을 기원한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sup>29)</sup>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Nor the furious winter's rages:  
Thou thy worldly task hast done,  
Home art gone, and ta'en thy wages:  
Golden lads and girls all must,  
As chimney sweepers, come to dust.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혹독한 겨울의 추위도.  
인생항로를 마치고  
저승길로 오른 그대.  
귀인도 천민도 모두  
굴뚝 청소부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Fear no more the frown o' the great,  
Thou art past the tyrant's stroke:  
Care no more to clothe and eat:  
To thee the reed is as the oak:  
The sceptre, learning, physic, must  
All follow this, and come to dust.

더 이상 왕의 진노를 두려워 말라  
폭군의 질타도 그대에게서 지나갔으니.  
입고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대에게 빈부의 차가 없나니.  
왕이나 학자나 의사도  
이 길을 따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29) 시의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William Shakespeare, 신정옥 역, 『셰익스피어 전집 24 심벨린』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2002), 137-138.

Fear no more the light'ning flash,  
 Nor the all-dreaded thunderstone;  
 Fear not slander, censure rash;  
 Thou hast finished joy and moan:  
 All lovers young, all lovers must  
 Consign to thee and come to the dust.

더 이상 번쩍이는 번갯불을 두려워 말라  
 땅을 흔드는 천둥소리도.  
 경솔한 비난 역시 두려워 말라  
 그대의 기쁨과 슬픔은 모두 끝이 났으니.  
 젊은 연인들도 모든 연인들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No Exorciser harm thee!  
 Nor no witchcraft charm thee!  
 Ghost unlaid forbear thee!  
 Nothing ill come near thee!  
 Quiet consummation have;  
 And renowned be thy grave!

어떤 마법사도 해치지 못 하리  
 어떤 마녀도 매혹하지 못 하리  
 떠도는 유령조차 억누르지 못 하리  
 재앙도 덮치지 못 하리  
 고요히 영면에 들 지어다  
 그대의 무덤에 명성 있으리.

시의 구조는 4연 24행으로, 각 연은 6행씩 규칙적으로 구성되어있다. 각운을 살펴보면, 4연을 제외한 1-3연에서는 ababcc의 규칙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연의 경우 1, 3행은 [ʌn], 2, 4행은 [eɪdʒəs]로 맞추었고, 2연의 1, 3행은 [ɪt], 2, 4행은 [oʊk]로 맞추었다. 3연은 1, 3행을 [æf], 2, 4행을 [moun]으로 맞추었다. 1-3연은 5, 6행을 각각 'must'와 'dust'로 통일하여 [ʌst]로 각운을 맞추었다. 4연은 앞과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었다. 1-4행을 'thee'로 끝나게 하였고, 5, 6행을 [v] 발음으로 맞추었다.

컬터가 셰익스피어 시에서 변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sup>30)</sup> 1연 1행의 'o'th' sun'을 'o' the sun'으로 바꾸었고, 3연 2행의 'th'all dreaded'를 'the all-dreaded'로 바꾸었다. 모두 축약된 모음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린 것으로, 연주 시 가사의 보다 명확한 전달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30) 가사와 비교한 셰익스피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lliam Shakespeare, *Cymbelin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08-209.

## 2) 곡의 구성 및 분석

시를 내용에 따라 분석한다면 1-3연은 현실 세계, 4연은 사후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A-A'-A"-B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쿼터는 시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A-A'-B-C로 곡을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각 연을 부르는 희곡의 노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희곡에서 1연은 기대리어스, 2연은 아비라거스가 부르는데 3연부터는 두 사람이 한 행씩 번갈아 부른다. 무엇보다 음악적으로 3연은 선율, 조성, 반주 면에서 앞 두 연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3연을 A"가 아닌 B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31)</sup> 또한 기존 논문들에서 더 나아가, 시의 각 연이 1-4행, 5-6행으로 나뉘짐에 따라 각 부분을 두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었다.

전주는 4마디이고, 간주는 2마디씩 짧게 쓰였으며 후주는 없다. 박자는 A부분에서 운율과 강세를 살리기 위하여 3/2박자로 잠시 변화되지만 이후로는 4/4박자를 유지한다. 템포는 'Andante Moderato'(적당히 느리게)이며  $\text{♩} = 92$ 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조성은 A, A'부분까지는 원조인 g#단조로 유지되는데 7음을 반음 올리지 않아 선법적인 느낌을 준다. B, C부분에서는 잦은 전조가 일어나며 마지막은 이명동음 관계인 A $\flat$ 장조로 끝난다.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곡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

31) 모든 기존 논문들은 곡의 구조를 시의 구조와 같이 A-A'-A"-B로 분석하였다. 남희예,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9; 최현진,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연주자 관점에서의 음악적 해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9; 최현민, "Roger Quilter의 가곡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1; 박선희,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2. 하지만 3연의 노래 부르는 방식과 음악적 변화로 볼 때 전체 구조를 A-A'-B-C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3]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구성

시			곡						
연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마디	조성	박자		
1연	1-4행	죽음을 겸허히 맞이하는 태도	A	전주	1-4	g#단조	4/4-3/2		
	5-6행			a	5-12		-4/4-3/2		
				a'	13-16		-4/4		
2연	7-10행	죽음 앞에 허망한 삶의 모든 문제	A'	간주	17-18		g#단조-E장조-a단조-Gb장조	4/4	
	11-12행			a''	19-26				
				a'''	27-30				
3연	13-16행	죽음 앞에 허망한 인간의 감정	B	간주	31-32	A b 장조-E장조-A b 장조			4/4
	17-18행			b	33-40				
				c	41-45				
4연	19-22행	죽은 이의 안식을 기원	C	간주	45-46		A b 장조-E장조-A b 장조	4/4	
	23-24행			d	47-54				
				e	55-60				

(1) A부분

A부분은 시의 1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삶을 끝낸 이에게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 4마디의 전주를 포함하여 a(마디5-12), a'(마디 13-16)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전주(마디1-4)

곡의 시작은 'espress. e legato'(감정을 담아 레가토로)의 지시어를 통해 장례식의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전주에서 처음 등장하는 선율은 약박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mf로 시작하여 점점 작아지는 이러한 선율은 슬픈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오른손에서 채 끝나 기도 전 왼손에서 모방되어 마치 두 왕자가 고개 숙이며 애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이후의 간주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사용된다(악보 1-1).

[악보 1-1]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1-4

② a(마디5-12)

a는 이승을 떠나는 이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시의 1-4행을 노래한다. a의 선율은 상행하였다가 하행하는 아치형이 2마디 단위로 반복되는 규칙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아치형의 선율은 흡에서 나서 흡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9-12의 선율은 앞 4마디 선율을 그대로 반복한다. 마디7, 11에서 3/2박자로 잠시 변박되는 것은 시의 강세와 운율을 음악에 그대로 옮기기 위한 쉼터의 섬세한 의도이다.

피아노는 아치형을 그리는 성악 선율에 맞춰 작곡되었다. 성악이 상행할 때는 분산화음 형태의 8분음표로 상승하는 느낌을 살리고, 하행할 때는 4분음표로 움직임을 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산화음은 피아노의 주된 요소로서 곡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데, 4분음표 위주의 성악 선율이 좀 더 흘러갈 수 있게 돕는다. 마디9-12에서 성악이 앞 4마디의 멜로디를 동일하게 반복할 때 피아노는 텍스처를 보다 두텁게 하여 변화를 주었다. 마디11에서는  $V_7/vii^\circ$  화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밝은 느낌이 든다. 이 부분의 가사를 직역하면 보상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죽음이 열심히 삶을 산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생각이 담겨있어 밝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악보 1-2).

[악보 1-2]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5-12

*mf* *legato* 아치형 선율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Nor the fur - ious win - ter's ra - ges;

Thou thy world - ly task hast - done, Home art gone, and ta'en thy wa - ges:

$V_7/vii^\circ$   $V$   $i$

③ a'(마디13-16)

a'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A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노래한다. 'Golden lads and girls'(황금의 젊은이들), 즉 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 성악 선율은 앞에서 쓰였던 아치형 선율을 5도 위로 높게 올려 표현하고 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마디16에서는 순차적으로 하행하다가 한 음 상행하여 g#단조의 으뜸음으로 마친다.

피아노 역시 왼손의 분산화음이 오른손까지 퍼지면서 더 높게 상승하여 '황금의 젊은이들'이 갖는 밝은 이미지를 표현한다. 또한 왼손이 넓은 음역으로 도약하는 만큼 처음으로 페달 사용을 지시하여 레가토로 잘 이어지도록 하며 풍성한 울림으로 성악 선율을 받쳐주도록 하였다(악보 1-3).

[악보 1-3]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13-16

13  
Gol - den lads and girls all must, As chim - ney swee - pers, come to dust.

(2) A'부분

A'부분은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문제들은 죽음 앞에 허망하다는 2연에 해당한다. 2마디의 간주와 a''(마디19-26), a'''(마디27-30)로 이루어져 있다. *p*로 시작하여 *mp-mf*로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를 점차 고조시키며 뒷부분의 가사를 강조한다.

① 간주(마디17-18)

간주는 마디16 마지막 박자에서 성악 선율을 받아 나오는데, 전주에 등장했던 선율을 한 옥타브 위에서 재현한 것으로, 분산화음을 추가해 화성적 색채를 더하였다. a에 등장한  $V_7/vii^\circ$ 화음이 여기서도 사용되어 전주와는 다르게 밝은 분위기로 성악을 예비한다(악보 1-4).

[악보 1-4]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17-18

② a~(마디19-26)

a~는 더 이상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입고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부분이다. 성악은 a와 같은 선율을 사용하지만, a와 다르게 3/2박자로 변박하지 않고 4/4박자 안에서 가사를 담아낸다.

피아노는 모든 마디에서 8분음표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흘러간다. 마디 19-20에서는 i 도의 분산화음이 점점 상승해 나가는데 성악과 함께 p로 지시되어 고요하고 꿈결 같은 느낌을 주며, 영혼이 죽음 이후의 세계로 향해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악보 1-5).

[악보 1-5]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19-26

19 *p*      **박자 변형X**

Fear no more the frown o' the great, Thou art past the ty - rant's stroke;

*p*      **분산화음의 상승**

*mp*

Care no more to clothe and eat; To thee the reed is as the oak: The

*mp*

③ a'''(마디27-30)

a'''는 지위나 직업에 상관없이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A'부분에서 가장 큰 *mf*의 섬여림으로 메시지를 강조한다. 'sceptre', 'learning'(마디27), 'physic'(마디28)은 모두 앞 음절에 강세가 오기 때문에 하행하는 두 음으로 각 단어를 표현하였고, 이 중 '왕'에 가장 높은 음을 부여해 왕의 높은 위치를 나타내었다.

피아노에서도 쿼터의 섬세한 작시법이 드러난다. 마디27-28의 왕, 학자, 의사는 각각 다른 화음이 부여되었지만 가장 아래 베이스 성부는 B음으로 지속되는데, 이들 모두 결국엔 흠으로 돌아갈 같은 운명임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B음은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상징하며, 마디29에서 아르페지오의 가장 높은 음으로 울리게 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악보 1-6).

[악보 1-6]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27-30

The scep - tre, learn - ing, phy - sic, must All fol - low this, and come to dust.

*mf* B의 지속음

iii      vii<sup>o</sup><sub>7</sub>      i

*poco rit.*

Detailed description: This is a musical score for a vocal and piano piece. The vocal line is in the treble clef, starting at measure 27 with a fermata over the first note. The lyrics are 'The scep - tre, learn - ing, phy - sic, must All fol - low this, and come to dust.'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grand staff. The right hand has a melody that starts with a whole note chord, followed by a series of chords. The left hand has a bass line with a steady eighth-note accompaniment.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like *mf* and *poco rit.*, and Roman numeral chord symbols (iii, vii<sup>o</sup><sub>7</sub>, i) are placed below the bass line. There are annotations in Korean: 'B의 지속음' (B's sustained sound) and 'B의 지속음' (B's sustained sound) with arrows pointing to specific notes in the piano part.

(3) B부분

B부분은 인간의 모든 감정들 역시 죽음 앞에 허망하다고 하는 부분이다. 간주(마디31-32), b(마디33-40), c(마디41-45)로 나누어진다. 원조인 g#단조에서 E장조, a단조, Gb장조로 잦은 전조가 일어나고 셈여림 또한 *mp-mf-p*로 변화되며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묘사한다.

① 간주(마디31-32)

B의 간주에서는 전주의 하행 선율이 보다 많이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오른손 선율이 G#이 아닌 E6에서 시작하며, 오른손 선율을 그대로 모방하였던 왼손은 C#4로 시작하여 또 한 번 변화를 준다. 이로써 뒤에 이어질 b부분에서 많은 전조가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악보 1-7).

[악보 1-7]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31-32

② b(마디33-40)

b의 성악 선율은 두려움, 괴로움, 기쁨과 슬픔 등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들이 죽음과 함께 끝이 났음을 노래한다. ‘piu sonoro’로 더욱 풍성한 울림을 가지고 불리도록 지시하였다(마디33). 순차적인 움직임이 보였던 앞부분과 달리 여기서는 도약을 많이 사용하여 자연 현상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한다(마디33-36). 4마디 선율은 그 다음 4마디에서 반복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선율로 진행하여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을 표현한다.

피아노에서도 새로운 반주 형태를 사용하여 가사의 의미 표현에 동참한다. 오른손 중성부와 왼손이 옥타브로 저음역에서 병진행하여 낮은 소리로 울리는 천둥 소리를 표현하였다(마디33-34). 이때 셈여림은 두려움에 움츠러든 모습처럼 *mp*로 작게 표현된다. 마디37-38에서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난을 묘사하듯 당김음 음형이 오른손과 왼손을 넘나들며 나오고 *mf*로 셈여림이 커져 다소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다. 조성은 마디33에서 먼 거리의 조성인 E장조로 직접 전조하고, 마디37에서 또 다시 a단조로 공통화음을 통해 전조하는데, 이러한 조성의 잦은 변화 또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채롭게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악보 1-8).

[악보 1-8]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33-40

33 *mp a tempo piu sonoro.* 천둥소리 묘사

Fear no more the light - 'ning flash, Nor the all - dread - ed thun - der-stone;

*a tempo*

*mp piu sonoro.*

E ; I

a ;  $I_7$   
 $V_7$

*mf*

Fear not slan - der, cen - sure rash; Thou hast fin - ished joy and moan: All

LH RH

*mf* 비난소리 묘사

→ a ; i

③ c(마디41-45)

c는 영원할 것 같던 연인들의 사랑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성악은 *p*와 'dolce'(부드럽게)의 부드럽고 달콤한 선율로 젊은 연인, 모든 연인들을 묘사한다(마디41-42). 마지막 구절인 'come to dust'는 1-2연에서부터 반복되어 온 구절인데, 앞에서는 마지막 음이 으뜸음으로 상행하여 끝나는 형태를 취했지만 여기서는 A $\flat$  장조의 V음인 E $\flat$  음을 향해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마무리된다(마디44-45). 지속적으로 하행하는 이러한 선율의 모습은 이제 망자의 영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떠나 사후 세계로 접어들게 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c의 피아노는 어두웠던 색채의 b부분에서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을 이룬다. 먼저 셈여림이 *mf*에서 *p*로 여려졌고, 전체적으로 음역이 높아져 오른손은 성악 선율보다 높은 음역에서 노래한다. 또한 조성은 a단조에서 Gb장조의 먼 거리로 또 한 번 전조되는데, 악보 상으로는 Ab장조의 조표가 붙어있으나 Cb과 Gb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Gb장조로 전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아노의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c부분은 앞부분과 상반된 분위기를 이루며, 여기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밝고 따스한 분위기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악보 1-9).

[악보 1-9]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41-45

(4) C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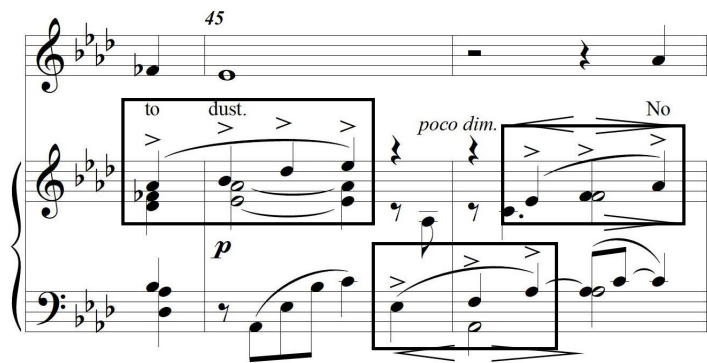
C부분은 사후 세계로 떠나는 이의 안식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지막 연에 해당하며 1-3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펼쳐진다. 고요하고 신비로운 사후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pp-mp* 사이의 여린 셈여림과 반음계적 화성이 사용되고 있다. 2마디의 간주와 d(마디47-54), e(마디55-60)로 구성되었으며 후주 없이 마친다.

① 간주(마디45-46)

간주는 B부분의 성악 선율과 맞물려 나오는데 A $\flat$  장조의 새로운 조성으로 시작한다. 간주의 선율은 B의 간주에 사용된 선율을 역행시킨 것으로, 하행했던 선율이 처음으로 상행하고 있다. 이로써 4연에서는 앞과는 다른 내용과 분위기가 펼쳐질 것을 암시한다(악보 1-10).

[악보 1-10]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45-46



② d(마디47-54)

d는 망자가 사후 세계에서 만나게 될 영적 생명체들로부터 무사하도록 기원한다. 성악 선율은 *pp*로 읊조리듯 시작한다. 마디54까지 8마디 동안 4분음표와 2분음표의 동일한 리듬(♩ ♩ ♩ ♩)을 반복하여 마치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피아노는 2마디씩 패턴을 이루어 진행하며 음산하고 고요한 영적 세계를 표현한다. 앞마디에서는 양손에서 신비로운 음색의 코드가 깔리고 오른손 상성

부에서 종소리 같은 두 개의 음이 울린다. 뒷마디는 8분음표의 음들이 상승하여 2분음표로 머무르는 성악 선율을 채워주고 영적 생명체들이 망자로부터 물러나는 모습을 묘사한다(악보 1-11).

[악보 1-11]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47-54

*pp* *sempre a tempo.* **동일한 리듬 패턴**

No ex - or - ci - ser harm thee! Nor no witch-craft charm thee!

*dolce* RH

*pp* *sempre a tempo.*

Ghost un - laid for - bear thee! Noth - ing ill come near thee!

*p* *mp*

**반음계적 화성 진행**

③ e(마디55-60)

e의 성악 선율은 마지막으로 망자의 영혼에 작별을 고하며 영면에 들기를 비는 부분이다. 'Quite'(고요히)라는 가사에 맞춰 *pp*로 지시하였고(마디55) 마지막 구절은 'Piu tranquillo'(더욱 조용하게)로 거의 속삭이듯 불리도록 하였다. 또한 이 부분의 선율은 성악의 첫 소절인 마디5-6과 동일한 음으로 이루어져 음악적인 수미상관을 이룬다(마디57-59).

피아노를 살펴보면 앞의 음산한 분위기를 묘사했던 화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평온한 색채의 화성을 사용하여 안식을 기원하는 가사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코드 위주의 절제된 움직임으로 성악의 고요한 분위기를 따르고 있으며, 성악의 마지막 음과 함께 ‘morendo’로 사라지듯이 곡을 마무리한다(마디59). 조성을 살펴보면 이 곡은 특이하게 원조로 돌아가지 않고 A $\flat$  장조로 끝나고 있다. A $\flat$  장조는 원조인 g $\sharp$ 단조와 이명동음 관계로, 단조에서 시작해 장조로 끝나게 함으로써 영원한 안식과 평안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1-12).

[악보 1-12]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55-60

55 *pp*  
 Qui-et con-sum - ma - tion have: And re-nown-ed be - thy grave  
*pp*  
*piu tranquillo.* *dim.*  
*piu tranquillo.* *dim.* *morendo.*  
 A $\flat$  ; iv

[악보 1-13]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 마디5-6 성악 선율

*mf* *legato*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 2.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Under the Greenwood Tree*)

### 1) 시의 내용 및 구조

제2곡은 희곡 『종으실 대로』 2막 5장의 에이미언즈가 부르는 노래로, 아든 숲에서의 삶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1연 1-4행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운 숲의 생활, 2연 1-4행은 세상 욕심 없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숲의 생활을 묘사한다. 희곡 안에서 아든 숲은 부패와 시기질투가 난무하는 궁정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쫓겨난 전임공작 일행이 자연과 어울리며 마음을 치유하고 햇빛 아래 겸손히 살아가는 곳이다. 1, 2연의 1-4행에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 2연의 5-7행은 동일하게 반복되어 후렴구를 이룬다. 5행에서는 숲으로 초대하며 숲에서 살아가는 만족함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6-7행에서는 숲이 원수로부터 자유를 주지만 ‘겨울과 거친 날씨’가 있는, 그저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 공간은 아니라고 말한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sup>32)</sup>

Under the greenwood tree	푸른 숲 나무 아래
Who loves to lie with me,	나와 같이 누워
And turn his merry note	즐거운 노랫가락
Unto the sweet bird's throat,	달콤한 새 소리에 맞출 사람
Come hither, Come hither, Come hither.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로 오라.
Here shall he see No enemy	이곳엔 아무 원수 없고
But winter and rough weather.	다만 겨울과 거친 날씨뿐이라네.
Who doth ambition shun	야망을 저버리고
And loves to live i' the sun,	햇빛 속에 살면서
Seeking the food he eats	먹을 양식을 스스로 구하며
And pleased with what he gets,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32) 가사의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William Shakespeare, 이운주 역, 『종으실 대로』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컨텐츠원, 2018), 82-85.

Come hither, Come hither, Come hither.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리로 오라.
Here shall he see No enemy	이곳엔 아무 원수 없고
But winter, but winter, winter and rough weather.	다만 겨울, 다만 겨울, 겨울과 거친 날씨뿐이라네.

시의 구조는 2연 14행으로, 각 연은 7행으로 되어있다. 각 연의 1-4행의 각운은 aabb의 구성을 취한다. 먼저 1연을 살펴보면 1행과 2행은 [i:]로, 3행과 4행은 [out]로 맞춰져있다. 2연의 경우 1행과 2행은 [ʌn], 3행과 4행은 [ts]의 발음으로 각운을 구성하였다. 각 연의 5-7행은 후렴구로 셰익스피어의 시에서는 동일하게 쓰였지만 켈터의 가사에서는 2연 7행에 'but winter, winter'가 추가되었다.<sup>33)</sup>

## 2) 곡의 구성 및 분석

켈터는 2연의 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여 A-A'의 유절 형식으로 옮겼다. 4마디의 전주와 간주가 있으며, 6마디의 후주로 마무리한다. 박자는 2/4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템포는 ♩=96으로 'pociss. riten.'(약간 느려지게)와 'a tempo'(원래 빠르기로)를 사용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보인다. 조성은 F장조로 시작하여 a단조와 g단조로 전조하였다가 F장조로 마무리한다. 'Allegro moderato ma giocoso'(적당히 빠르게, 그러나 경쾌하게)의 지시어를 사용해 곡 전체 분위기를 밝고 유쾌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푸른 숲 나무 아래> 곡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33) 가사와 비교한 셰익스피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lliam Shakespeare, *As You Like It*,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38-139.

[표 4]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구성

시			곡			
연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마디	조성
1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숲에서의 즐거운 삶	A	전주	1-4	F장조
	1-4행			a	5-12	F장조-a단조-F장조
	5-7행			b	13-20	F장조-g단조-F장조
2연		세상 욕심 없이 자급자족하는 숲에서의 삶	A'	간주	20-23	F장조
	8-11행			a'	24-31	F장조-a단조-F장조
	12-14 행			b'	32-41	F장조-g단조-F장조
				후주	41-46	F장조

(1) A부분

A부분은 시의 1연에 해당하며 숲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묘사하고 있다. 총 20마디로 전주(마디1-4), a(마디5-12), 후렴구 b(마디13-20a)로 이루어져 있다.

① 전주(마디1-4)

전주는 숲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f*로 힘차게 제시한다. 왼손의 엷박으로 시작한 후 3마디 동안 16분음표와 8분음표로 이루어진 리듬(♩♪)이 반복된다. 숲속의 밝은 새소리를 묘사한 듯한 이 리듬은 오른손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강하며 왼손의 중성부와 하성부로 퍼져나간다. 이 음형은 4도 음정으로 병진행하며 목가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4도 병행 음형은 전주뿐 아니라 간주, 후주에도 쓰여 곡 전체에 통일감을 준다(악보 2-1).

[악보 2-1]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1-4

Allegro moderato ma giocoso ♩=95

F ; V<sub>7</sub>                  vi                  ii<sub>7</sub>                  iii                  ii

② a(마디5-12)

a의 성악 선율은 나무 아래 누워 새소리에 화음을 맞추는 모습을 흥겹게 노래한다. 비교적 높은 음 F5의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여 마디8에 이르기까지 점차 하행한다. 마디9-12의 성악 선율은 ‘달콤한 새소리에 맞춰 노래하는’ 가사에 맞춰 상행하는 선율로 바뀐다. ‘tree’, ‘me’(마디6, 8), ‘note’, ‘throat’(마디10, 12)는 각 행의 각운에 해당하는 단어들로서, 4분음표의 비교적 긴 음가를 사용하여 운율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피아노 반주는 성악 선율을 화성적으로 채워주는데, 마디5에서 ‘leggiero’(가볍게) 지시어를 통해 각 화음들이 성악 선율에 어울리는 경쾌한 울림으로 연주되도록 하였다. 마디5에서 마디8로 진행되는 동안 성악 선율과 반주는 전주에 쓰인 리듬을 주고받으며 경쾌한 호흡을 만들어간다. 마디9-12는 3도 관계인 a단조로 전조되는데, 이를 통해 단순한 선율에서 오는 지루함을 덜어내며, 동시에 숲에서의 즐거운 모습 뒤에는 어두운 면도 있음을 단조로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2-2).

[악보 2-2]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5-12

**성악과 피아노의 대화**

The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5-12.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mf* dynamic and a fermata over the first measure. The piano accompaniment is marked *mf* and *leggiero*.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3-20. The vocal line includes markings for *pochiss. riten.* and *f a tempo*. The piano accompaniment also includes *pochiss. riten.* and *a tempo* markings. Below the piano part, a chord diagram for the first measure shows a box around the notes *iii* and *i*, with an arrow pointing to *ii7°*. The chord sequence for the second system is *V 2<sup>4</sup> i 6 F ; V*.

③ b(마디13-20)

5-7행의 후렴구를 노래하는 b의 성악 선율은 3마디+5마디의 유연한 선율 구조를 보인다. 도약 진행을 위주로 하여 a선율에 비해 더 활발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피아노는 성악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3마디+5마디로 뚜렷이 구분된다. 마디 13-15에서는 피아노가 '이리 오라'고 하는 성악 선율을 반 박자 뒤에서 쫓아가고 있으며, 모든 음이 스타카토와 'marcato'(모든 음을 강조하여)로 텍스트를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마디16부터는 텍스처가 두터워지고 모든 음에 테누토를 표시하는 등 앞의 발랄한 느낌과 대조되는 무겁고 진지한 느낌을 주는

데, 이는 이 부분의 가사가 숲 생활의 혹독한 이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디16-17에서 조성은 2도 관계의 g단조로 바뀐다. a에서는 가까운 조성인 a단조로 숲의 이면을 암시하는 데 그쳤다면, b에서는 비교적 더 먼 조성을 통해 숲의 혹독한 날씨가 주는 고통과 위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악보 2-3).

[악보 2-3]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13-20

g ; ii<sup>4</sup><sub>2</sub>

V<sub>6</sub>    vii<sup>7</sup>    i    F ; iv<sub>7</sub> → I

(2) A'부분

A'부분은 세상 욕심 없이 자급자족하는 삶을 그리고 있는 시의 2연에 해당한다. 총 27마디로 간주(마디20-23), a'(마디24-31), b'(마디32-41), 후주(마

디41-46)로 이루어진다. 길이가 앞의 b부분에 비해 2마디 더 늘어났고 조성 변화는 A부분과 동일하다.

① 간주(마디20-23)

간주는 지시어, 몇 개의 음을 제외하고 전주와 거의 동일하다. ‘*marcato*’뒤에 ‘*e con spirito*’(그리고 활기 있게)를 추가하여 앞보다도 더 생기 넘치게 연주되도록 지시한다. 또한 시작화음이 V에서 I로 달라졌는데, 마디19-20에서 V-I의 화음 진행으로 A부분을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 시작하는 A'부분의 간주부분은 자연스럽게 I화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악보 2-4).

[악보 2-4]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20-23

(F;) I

② a'(마디24-31)

a'의 성악 선율은 야망을 버리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a부분에서 쓰였던 선율을 거의 그대로 쓰되 시의 강세에 따라 리듬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

피아노의 경우, 음역을 전체적으로 한 옥타브 상승시켜 성악에 비해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인다. 또한 성악과 반주 모두 마디24에서 *mp*로 셈여림이 더 작게 지시되어 보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는 야망을 버리고

숲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28-31에서는 앞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poco cresc.*를 사용하여 자급자족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때 반주는 저음역과 고음역을 넘나들며 *cresc.*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a'부분은 셈여림을 통해 시를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악보 2-5).

[악보 2-5]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24-31

③ b'(마디32-41)

b'는 후렴구로서 b와 같은 가사가 반복된다. 하지만 쉼표는 후렴구에서 숲의 이면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winter'와 'weather'에 변화를 주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피하였다. 마디37에 'but winter, winter' 가사를 추가하였고, 마디39에서는 'weather'의 음가를 길게 확장시켜 성악 선율을 화려하게 마무리하였다.

피아노에서는 ‘이리 오라’에 해당하는 마디32-34에 꾸밈음을 추가하여 유희적인 느낌을 더했다. 마디38에서 성악 선율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때 반주는 악센트가 붙은 화음으로 모든 음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뒷받침한다. 그리고 마디39에서 ‘weather’가 길게 지속되는 동안 ♩ 리듬이 또다시 나오면서 성악 선율을 꾸며준다(악보 2-6).

[악보 2-6]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32-4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2-37,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38-41. The vocal line is in the upper staff, and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lower staves. The piano part includes specific markings: 'f' (forte), 'a tempo', 'staccato e marcato', and 'poco riten.'.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a section of '꾸밈음' (ornamentation) in measures 32-34 and '추가' (addition) in measures 35-41. The lyrics are: 'Come hith - er, come hith - er, come hith - er: Here shall he see No en - e - my But win - ter, but win - ter, win - ter and rough wea - ther.'

퀄터에 의해 추가된 가사

④ 후주(마디41-46)

후주는 ‘molto giocoso e marcato’(더욱 익살스럽게 모든 음을 강조하여)로 곡의 유쾌한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시킨다. 후주에서는 F의 지속음 위에서 ♯리듬이 더 높은 C6에서부터 시작하여 4도 간격으로 많이 도약하며 내려오고 있다(마디41-42). 이후 이 음형은 같은 음정으로 머무르며 종지를 향해간다. 과장되고 해학적인 후주는 이 곡의 배경이 되는 『좋으실 대로』의 등장인물을 연상시킨다(악보 2-7).

[악보 2-7]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 마디41-46

41

ther.

a tempo

f

LH

molto giocoso e marcato

4도 4도

sempre a tempo

f

sf

### 3.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It was a Lover and his Lass*)

#### 1) 시의 내용 및 구조

제3곡은 희곡 『좋으실 대로』 5막 3장에서 두 시동이 부르는 노래이다. 결혼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터치스톤과 오드리 앞에 전임공작의 두 시동이 나타나고, 터치스톤은 이들에게 노래를 청한다. 1연은 옥수수 밭을 거니는 연인들, 2연은 호밀밭에 누운 연인들의 모습을 각각 묘사하고 있다. 3연은 인생은 꽃과 같이 짧다고 이야기하며, 4연에서는 앞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인생의 봄과 같은 시절에 사랑하라고 권유한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sup>34)</sup>

It was a lover and his lass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That o'er the green cornfield did pass.  
In the spring 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Between the acres of the rye,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These pretty country folks would lie.  
In the spring 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This carol they began that hour,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헤이 호 헤이 노니노,  
푸른 옥수수 밭 가로질러 걸었다네.  
시집 장가가기 딱 좋은 봄철에,  
새들도 노래하네, 헤이 덩어딩딩  
덩어딩딩 덩어딩딩  
사랑스런 연인들은 봄을 좋아해.

호밀밭 고랑 사이에,  
헤이 호 헤이 노니노,  
아름다운 시골 남녀들 몸을 뉘이지.  
시집 장가가기 딱 좋은 봄철에,  
새들도 노래하네, 헤이 덩어딩딩  
덩어딩딩 덩어딩딩  
사랑스런 연인들은 봄을 좋아해.  
그 때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지.

34) 가사의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William Shakespeare, 이운주 역, 『좋으실 대로』, 199-200; William Shakespeare, 최종철 역, 『셰익스피어 전집 1』 (서울: 민음사, 2014), 355-356.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How that life was but a flow'r  
 In spring time, in spring 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Sweet lovers,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헤이 호 헤이 노니노,  
 인생은 한낱 꽃과 같다고.  
 시집 장가가기 딱 좋은 봄철에,  
 새들도 노래하네, 헤이 덩어딩딩  
 덩어딩딩 덩어딩딩  
 사랑스런 연인들은 봄을 좋아해.

And therefore take the present time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For love is crownéd with the prime  
 In the spring 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그러니 현재를 즐겨야 해요.  
 헤이 호 헤이 노니노,  
 사랑의 호시절이 왔으니까.  
 시집 장가가기 딱 좋은 봄철에,  
 새들도 노래하네, 헤이 덩어딩딩  
 덩어딩딩 덩어딩딩  
 사랑스런 연인들은 봄을 좋아해.

시의 구조는 4연 24행으로 되어있다.<sup>35)</sup> 2행, 4행, 5행, 6행이 각 연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1, 3행만이 변화된다. 각운은 1, 3행에 나타난다. 1연에서는 [æ], 2연은 [aɪ], 3연은 [aʊə(r)], 4연은 [aɪm]의 발음으로 각운을 이루었다.

컬터는 제3곡에서도 셰익스피어 시에 약간 변형을 가했다.<sup>36)</sup> 먼저, 3연을 제외한 각 연의 4행은 'In spring time'에 'the'를 추가하였고, 3연에서는 'the'를 추가하지 않는 대신 'In spring time'을 한 번 더 반복하였다. 각 연 5행의 'ding a ding ding'은 원래의 시에서는 한 번만 나타나지만 컬터는 두 번 더 반복하여 의성어가 주는 음악적인 즐거움과 리듬감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3연 3행의 'flower'는 'flow'r'로 축약하였고 6행의 'sweet lover'를 한 번 더 반복하였다.

35) 위의 가사에서 각 연의 6행에 해당하는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은 컬터에 의해 추가된 부분이므로 5행의 연장으로 구분하였다.

36) 가사와 비교한 셰익스피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lliam Shakespeare, *As You Like It*, 215-216.

2) 곡의 구성 및 분석

컬터는 4연의 시를 A-A'-B-A"으로 구성하였다. 시에서 3연은 다른 연들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사랑도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컬터는 3연을 선율 및 조성 면에서 다른 연들과 대비되는 B로 구성하였다. 전주는 4마디, 간주는 3마디씩 이루어졌으며 후주는 생략되었다. 박자는 2/4박자이며, 템포는 'Allegretto moderato'(적당히 빠르게)와 함께  $\text{♩} = 74$ 의 구체적인 속도로 제시되었다. 조성은 A $\flat$  장조로 시작하여 B부분에서 b $\flat$  단조와 e $\flat$  단조로 전조되었다가 A"에서 원조로 돌아온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의 구성을 도표화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구성

시			곡			
연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마디	조성
1연		옥수수 밭을 거니는 연인들	A	전주	1-4	A $\flat$ 장조
	1-4행			a	5-14	
	5-6행			b	15-20	
2연		호밀밭에 누운 연인들	A'	간주	20-22	
	7-10행			a'	23-32	
	11-12행			b'	33-38	
3연		꽃과 같이 짧은 인생	B	간주	38-40	A $\flat$ 장조
	13-16행			c	41-50	b $\flat$ 단조- e $\flat$ 단조
	17-18행			b''	50-59	e $\flat$ 단조- A $\flat$ 장조
4연		좋은 시절에 마음껏 사랑할 것을 권유	A"	간주	57-59	A $\flat$ 장조
	19-22행			a''	60-69	
	23-24행			b'''	69-75	

(1) A부분

A부분은 푸른 옥수수 밭 사이를 가로지르며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 4마디의 전주, a(마디5-14), b(마디15-20)로 나누어진다.

① 전주(마디1-4)

전주는 당김음, 점8분음표+32분음의 붓점이 포함된 피아노의 독자적인 선율로 시작한다. 이 선율은 오른손에서 *mp*와 약박으로 작게 시작하여 점8분음표를 향해 점점 커지고, 이 선율을 왼손에서 5도 아래로 이어받아 그대로 뒤따라간다. 긴 레가토로 나란히 진행되는 이 두 개의 선율은 옥수수 밭 사이로 모습을 점점 드러내는 두 연인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선율 후반부의 오르락내리락하는 16분음표와 8분음표 리듬(♩♪)은 뒤에 나올 성악 선율에서 연인과 새의 노랫소리를 묘사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선율의 모양은 성악에서 쓰이지 않아 피아노만의 독자적인 선율이라 할 수 있다. 전주는 전체적으로 시의 배경이 되는 봄날과 같이 따스한 느낌을 주고 있다(악보 3-1).

[악보 3-1]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1-4

Allegretto moderato ♩=74

*mp*

5도 아래 모방 [LH]

*mp* It

② a(마디5-14)

a의 성악 선율은 붓점과 8분음표 리듬을 통해 연인들의 흥겨운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는 전주에서 사용됐던 ♩ 리듬으로 흥겹게 표현하였다(마디7-8). ‘spring time’(마디11)과 ‘ring time’(마디13-14)에는 비교적 긴 음가인 4분음표를 배치하여 운율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a의 피아노 역시 8분음표를 위주로 하여 경쾌한 발걸음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장화음의 밝은 화성으로 진행하던 피아노는 마디10에서 V의 반감7화음, 마디11에서 iii, vi의 단화음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긴장감을 부여하며 어두운 색채를 띤다. 이는 연인들의 젊음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14에서는 오른손의 6도로 병행하는 스타카토로 b에서 등장할 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을 묘사한다(악보 3-2).

[악보 3-2]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5-14

연인들의 노랫소리

*mp* 5

It was a lov-er and his lass,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ni-no, That o'er the green corn-

*mp*

field did pass, In the spring time,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vii<sup>b</sup> 7/V* *iii* *vi* 새가 날아드는 모습 묘사

③ b(마디15-20)

b의 성악 선율은 'dolce'로 부드럽게 연인 주위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새 소리를 노래한다. 의성어 'ding a ding ding'(마디16-18)은 연인들의 노랫소리와 마찬가지로 전주의 ♪ 음형을 사용하여 리듬감 있게 표현하였다. 사랑스러운 연인들은 봄을 좋아한다는 1연의 마지막 구절은 으뜸음을 향해 하행하는 선율로 마무리하였다. b의 선율은 이후 b', b'', b'''에서 반복되어 후렴구를 이루며, 동일하게 쓰이기도 하고 변형되어 나오기도 한다.

b의 피아노 성부는 새 소리에 맞추어 새로운 반주형태가 등장한다. 왼손은 Ab 음을 지속음으로 한 분산화음이 연주되는데 슬러 스타카토(slur

staccato)와 페달을 통해 성악 선율을 풍성한 음향으로 받쳐준다. 오른손에서는 둘째 박마다 옥타브로 이루어진 E♭음이 울리도록 하여 새 소리의 밝은 느낌을 더한다. 사랑스런 연인들은 봄을 좋아한다는 마지막 구절에서는 다시 코드 형태의 반주로 돌아오며 ii-V<sub>7</sub>-I의 정격종지로 1연이 끝났음을 알린다. 이때 ‘leggiero’(가볍게) 지시어를 사용하여 가사의 명랑한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악보 3-3).

[악보 3-3]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15-20

**새의 노랫소리**

*dolce* 15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p*  
*leggiero*  
ding a ding, ding; Sweet lovers love the spring.  
*mp*  
*espress.*

(2) A'부분

A'부분은 호밀밭 고랑 사이에 누워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간주(마디20-22), a'(마디23-32), b'(마디32-38)로 구성된다.

① 간주(마디20-22)

간주는 앞부분 성악 선율의 마지막 음과 겹쳐서 시작한다. 나란히 걷는 연인들을 나타냈던 전주 선율이 약간 변화되고 축소된 형태로 사용되어 보다 가까워진 연인 사이를 암시한다. A♭ 5의 더 높은 음에서 시작하였고 왼손에 의해 5도 아래로 모방되었던 선율은 오른손 중성부에서 단편적으로 등장할 뿐 전체적으로는 생략되었다. 대신 왼손은 A♭ 3의 지속음과 화음으로 화성적 색채를 더한다. 선율의 길이는 더 짧아졌지만 ‘espress.’로 보다 풍부한 표현을 가지고 연주되도록 하였다(악보 3-4).

[악보 3-4]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20-22

② a'(마디23-32)

a'의 성악 선율은 마디26까지 a와 같은 선율을 mf로 노래하다가 아름다운 시골 남녀가 밭고랑 사이에 몸을 누인다는 마디27부터는 다른 선율로 진행한다. 마디28에서 선율은 3도, 4도 도약을 거쳐 'lie'라는 시어에 도달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음을 표현한다.

a'의 피아노는 a에 비해 음역을 한 옥타브 가량 낮춤으로써 연인들이 누워 있는 모습을 표현한다. 가벼운 짜임새의 8분음표 코드로 이루어졌던 앞부분과 달리 a'에서는 오른손에 레가토 선율이 등장한다. 4분음표의 단순한 선율이지만

‘cantabile’(노래하듯이)로 지시되어 성악 선율과 듀엣을 이루듯 노래되도록 하였다. 마디25-26에서는 8분음표 스타카토의 화음들로 성악 선율에 나타난 연인들의 흥겨운 노랫소리를 유쾌하게 받쳐준다. 중성부에 놓였던 레가토 선율은 마디27 이후부터는 상성부로 올라와 연인들의 발전된 사랑을 표현하며, 아르페지오와 ‘poco ten.’로 ‘lie’라는 가사를 강조하였다(마디28). 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묘사하였던 6도 병행 스타카토 부분은 마디32에서 3도 간격으로 변화를 주었다(악보 3-5).

[악보 3-5]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23-32

*mf* 23  
Be - tween the a - cres of the rye, With a hey, and a ho, and a hey no - ni - no, These pret - ty coun - try

**레가토 선율의 등장**  
*mf cantabile*

3도 4도  
*poco ten. a tempo*  
folks would lie, In the spring time, the on - ly pret - ty ring time, When

*poco ten. a tempo*

③ b'(마디33-38)

b'는 후렴구로, 변화 없이 b와 동일한 성악 선율로 진행한다. 피아노는 이와 달리 변화를 주었다. 왼손의 경우 각 마디의 마지막 8분음표를 침표로 생략하였고 그 자리를 오른손의 16분음표 선율이 채워 넣도록 하였다. 16분음표 선율은 마디35 이후로 짝 이어져 높은 음역에서 화려하게 성악 선율을 장식한다(악보 3-6).

[악보 3-6]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33-38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3-35,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36-38. The vocal line is in the upper staff, and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lower staff. The key signature has three flats (B-flat major or D-flat minor),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piano part starts with a mezzo-piano (*mp*) dynamic. In measure 35, a decorative line is added to the right hand, consisting of a series of sixteenth notes in the upper register. This line continues through measures 36 and 37. The annotation '장식적인 선을 추가' (Add decorative line) is placed above this line. The piano part ends in measure 38 with a mezzo-forte (*mf*) dynamic.

(3) B부분

B부분은 인생이 꽃과 같이 짧다고 말하는 3연에 해당한다. 연인들의 사랑과 젊음 모두 영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부분은 연인들의 행복한 모습

이 묘사되었던 1, 2연과 내용적으로 대비를 이루며, 음악 또한 선율, 조성, 반주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간주(38-40), c(마디41-50), b<sup>♭</sup>(마디51-59)로 이루어져 있다.

① 간주(마디38-40)

B의 간주는 전주의 선율 대신 새로운 선율이 등장한다. 약박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전주와는 달리 정박으로 시작하며, 4도와 5도 간격으로 넓게 도약하는 각 음을 악센트로 강조하여 단호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준다. G<sup>♭</sup>의 변화음은 뒤에서 b<sup>♭</sup> 단조로 전조될 것을 암시한다. 마디40에서는 ‘poco rit.’로 살짝 느려지면서 작아져 *p*로 고요하게 시작하는 성악 선율을 예비한다(악보 3-7).

[악보 3-7]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38-40

② c(마디41-50)

c의 성악 선율은 *p*와 ‘poco piu tranquillo’(점점 더 고요하게)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요한 분위기로 시작한다. 인생이란 꽃과 같다는 마디45-46은 다른 프레이즈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강약격의 음보를 가지고 있어 정박에서 프레이즈가 시작된다. 5도로 높이 도약하였다가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iii음인 D

b 5로 끝나는 선율에서 가사의 내용처럼 허무한 감정이 느껴진다.

c의 피아노는 A b 장조와 먼 관계인 b b 단조로 전조되어 시작한다. 고요한 성악 선율에 맞춰 피아노도 4분음표 위주의 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인생이 한낱 꽃과 같이 덧없다고 하는 마디45-46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반진행하며 음역이 점점 더 넓게 펼쳐지도록 하여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하지만 'but'(그러나)에 해당하는 음에서 ii의 반감7화음을, 그 다음은 제1전위된 III화음이 놓이게 함으로써 가사의 허무함과 슬픈 감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지시어 'espress.'와 'poco riten.'를 더해 점점 느려지는 가운데 섬세한 감정으로 가사를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다시 'a tempo'로 ♩ 리듬이 더해진 활발한 움직임을 회복하여 사랑의 결실을 맺는 봄철을 유쾌하게 노래한다. 하지만 앞에서 a와 b를 연결하고, 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을 묘사했던 6도 병행 스타카토 음형이 여기서는 생략된 채 곧바로 b"로 넘어간다(악보 3-8).

[악보 3-8]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41-50

*p* 41

This ca - rol they be - gan that hour, With a hey, and a ho, and a

*a tempo, ma poco piu tranquillo*

**b $\flat$  ; V**

**강박으로 시작하는 프레이즈**

hey no - ni - no, How that life was but a flow, In spring time, In

*mp* *espress.* *poco riten.* *a tempo*

*espress.* *a tempo*

*mp* *poco riten.* *a tempo*

**vii $\flat$ /ii III**

spring time, the on - ly pret - ty ring time, When

*poco rit.*

*poco rit.*

③ b<sup>♭</sup>(마디51-59)

1, 2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었던 후렴구는 b<sup>♭</sup>에서 4도 아래 단조 선율로 옮겨져 음울한 느낌으로 노래된다. 'ding a ding ding'은 하행 없이 세 번에 걸쳐 쪽 상승하다가 'sweet lovers'(마디55)에 이르면 살짝 느려지며 여운을 느끼게 한다.

b<sup>♭</sup>의 피아노는 원조의 5도 관계조인 e<sup>b</sup> 단조로 전조되어 시작한다. 성악 선율이 새 소리를 묘사하는 마디52-54에서 피아노는 앞부분과 또 다른 반주형을 사용한다. 분산화음 형태였던 왼손은 E<sup>b</sup>의 지속음 위에 당김음 리듬(♪♪♪)으로 변화하였다. 오른손의 경우 성악과 같은 선율을 한 옥타브 위에서 반복하여 성악과 피아노가 새소리를 주고받듯 대화가 이루어진다(악보 3-9).

[악보 3-9]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51-59

**성악과 피아노의 대화**

51 *p a tempo* When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Sweet

*p a tempo* *pochiss. riten.*

*espress. a tempo* lov - vers, sweet lov - ers love the spring *pochiss. riten.*

*mp a tempo* *pochiss. riten.*

e<sup>b</sup> ; i

(4) A"부분

A"부분은 인생의 봄날에 후회 없이 사랑하라는, 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주(마디57-59), a"(마디60-69), b"(마디70-75)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주 없이 노래와 함께 마친다.

① 간주(마디57-59)

A"의 간주는 B부분 성악 선율이 마지막 음을 지속하는 동안 겹쳐서 나온다. 조성은 원조인 A b 장조로 돌아오고, 선율은 점점 상승하고 커지면서 장막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듯 밝아지는 느낌을 준다. 이를 통해 어두운 메시지가 담겨 있던 B부분과 달리 A"부분은 희망적인 내용이 이야기될 것을 드러낸다. 마디59에서는 A부분에서 a와 b 사이를 연결하고 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묘사했던 6도 스타카토 음형이 등장한다. 이는 그 동안의 전주와 간주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B부분에서 생략된 이 부분이 A"의 간주에서 대신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3-10).

[악보 3-10]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57-59

*pochiss.rit.*

spring

*pochiss.rit.*

Ab ; V

② a"(마디60-69)

성악 선율은 확신에 찬 어조로 현재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mf*의 힘찬 셈여림으로 시작한다. 마디64-65에서는 선율이 'crowned'(완성하다)와 'prime'(전성기)을 향해 두 번 상행하여 현재야말로 사랑이 최고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임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다.

피아노는 왼손에서 오른손까지 이어지는 넓은 음역의 아르페지오로 시작하여 성악의 힘찬 선율을 풍성한 음향으로 받쳐준다. 오른손의 레가토 선율은 A'부분의 a'에 사용되었던 선율로, 옥타브로 중복하여 사랑을 권유하는 가사의 밝고 희망찬 내용을 더욱 고조된 분위기로 표현한다. 상승하는 선율로 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마디64-65에서는 크레센도와 아르페지오로 시어를 강조한다(악보 3-11).

[악보 3-11]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60-69

*mf* 60 *a tempo primo.*

And there-fore take the pre-sent time, With a hey, and a ho, and a

*a tempo primo.*

*mf* *cantabile*

*And* \* *poco riten.* *mp* *a tempo*

hey no-ni-no, For love is crown-ed with the prime In the spring time,

*poco riten.* *a tempo* *mp*

the on-ly pret-ty ring time, When

*mp*

③ b'''(마디70-75)

마지막 후렴구인 b'''는 앞과 동일하게 흘러가다가 마디74에서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인 Ab 5에 도달하고 마무리된다. 최고음이지만 p의 여린 셈여림으로 지시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피아노는 앞에서 사용되었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b부분에서 밝은 새소리를 묘사한 Eb의 옥타브가 오른손에 재등장하였는데, 이번엔 스타카토가 아닌 테누토로 길게 지속한다. b에서 이루어졌던 성악과 피아노 오른손의 대화가 여기서는 왼손과 오른손의 중성부로 옮겨갔다. 레가토와 p로 가볍게 연주되었던 앞부분과 달리 악센트로 보다 강하고 뚜렷하게 노래하도록 한다. 각 선율들을 테누토와 악센트로 강조함으로써 성악 선율이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것을 돕는다. 마지막은 후주 없이 으뜸화음이 높은 음역에서 한번만 울리고 끝맺도록 하여 단순하지만 깨끗한 사랑을 표현하였다(악보 3-12).

[악보 3-12]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70-75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70-75) show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features a melody in the right hand with accents and tenuto marks,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The second system (measures 76-81) continue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ending with a final chord marked *pp* and an 8va marking.

[악보 3-13]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15-17

15

birds do sing, hey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p*

오른손의 Eb 옥타브 스타카토

[악보 3-14]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 마디52-54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ding a ding, ding, Sweet

*pochiss.riten.*

*pochiss.riten.*

성악과 피아노 오른손의 대화

#### 4. 제4곡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Take, O take those lips away*)

##### 1) 시의 내용 및 구조

제4곡은 희곡 『자에는 자로』의 4막 1장에서 한 소년이 마리아나 곁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소년의 노래를 통해 약혼자에게 배신당한 마리아나의 심경이 드러난다. 시의 내용은 사랑을 거짓 맹세한 옛 연인을 원망하며 후회하는 여인의 심정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sup>37)</sup>

Take, O take those lips <u>away</u> ,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That so sweetly were <u>forsworn</u>	달콤한 말로 거짓 맹세를 일삼는 그 입술을.
And those eyes, the break of <u>day</u>	그 눈도 가져가세요,
Lights that do mislead the <u>morn</u>	아침을 알리는 새벽빛인 줄 알게 한 그 눈을
But my kisses bring <u>again</u> ,	하지만 내 입맞춤은 돌려주세요,
Seals of love, but sealed, but sealed in <u>vain</u>	헛되이 찍은 사랑의 봉인을.

시의 구조는 1연 6행으로 이루어져있다. 각운은 ababcc로, 1행과 3행이 [eɪ], 2행과 4행이 [ɔɪr̩n], 5행과 6행이 [em]의 발음으로 각각 짝을 이루고 있다. 킬터는 이 곡에서도 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sup>38)</sup> 5행 ‘But my kisses bring again, bring again’에서 ‘bring again’을 생략하였고, 6행 역시 ‘Seals of love, but sealed in vain, sealed in vain’에서 앞의 ‘in vain’을 생략하여 느린 템포 안에서 가사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37) 시의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William Shakespeare, 김종환 역, 『자에는 자로』, 137.

38) 가사와 비교한 셰익스피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lliam Shakespeare, *Measure for measur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77.

## 2) 곡의 구성 및 분석

퀵터는 6행의 시를 21마디의 짧은 음악으로 옮겼다. 2마디의 전주와 5마디의 후주를 갖는다. 박자는 3/4박자, 템포는 ‘Andante espressivo’로 느리게 지시되었고 마찬가지로  $\text{♩} = 60$ 의 구체적인 속도를 제시하였다. 가곡집의 5곡 중 가장 느리다. 조성은 E장조이지만 중간에 B장조, A장조로 전조된 후 원조로 돌아오며 마친다.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곡의 구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제4곡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구성

시			곡			
연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마디	조성
A		사랑을 배신한 연인에 대한 원망	A	전주	1-2	E장조
	1-4행			a	3-10	E장조-B장조
	5-6행			b	11-17	A장조-E장조
				후주	17-21	E장조

### (1) A부분

A부분은 자신을 버린 연인을 원망하는 여인의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노래한다. 전주(마디1-2), a(마디3-10), b(마디11-17), 후주(마디17-21)로 나뉘진다.

#### ① 전주(마디1-2)

전주에서는 먼저 왼손에서 네 음으로 이루어진 모티브가 제시된다. 이 모티브는 장2도, 단3도 간격으로 상행하다가 장2도로 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슬픔이 차오르는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왼손에서 제시된 모티브는 곧바로 오른손 중성부에서 5도 위로 모방된다(마디2). 이때 왼손에서는 8분음표와 점4분음표(♩ ♩.)의 당김음 리듬이 사용되어 애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다. 전주에서 제시된 당김음 리듬과 짧은 모티브는 이후로도 성악 선을

및 반주부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곡 전반에 애통하고 슬픈 어조를 유지한다. 조성은 E장조임에도 불구하고 vi와 iii의 단화음을 사용하여 슬픔의 감정을 더욱 짙게 하고 어둡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성한다(악보 4-1).

[악보 4-1]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마디1-2

Andante espressivo ♩=60

전주 모티브

5도 위로 모방

당김음의 사용

E ; vi iii

② a(마디3-10)

a의 성악 선율은 과거 연인의 말과 눈빛을 떠올리며 거짓된 사랑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다. a부분은 2마디씩 총 4개의 프레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앞 3개의 프레이즈가 전주의 모티브로 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에서 조성된 슬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노래로 이어진다. 연인에게 입술을 가져가라고 하는 첫 구절에서 선율은 상행하였다가 하행하여 아치형을 그린다. 하지만 마디5-6에서 연인의 거짓맹세를 떠올릴 때 선율은 4도 간격으로 도약한 후 상승하여 배신감과 원망을 표현한다. 아침으로 착각할 만큼 밝게 빛난 연인의 눈빛을 떠올리는 마디9-10에서는 선율이 조심스럽게 상승하며 꿈결 같던 그 순간의 행복을 묘사한다.

a의 피아노 성부는 코드와 분산화음이 어우러진 반주 형태로,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며 흘러간다. 전주는 단화음을 사용하여 어두운 느낌을 주었

던 반면, 성악 첫 소절은 I, IV, V의 장화음으로 피아노가 채워주고 있어 밝은 느낌을 준다(마디3-4). 하지만 오른손 중성부에서 성악 선율과 함께 슬픈 모티브를 노래하고 있고, 왼손에서는 애통함을 표현하는 당김음을 사용하여 마냥 밝은 느낌이 아니라 애써 슬픔을 감추는 느낌을 준다. 마디5-6 성악 선율이 거짓 맹세로 인한 배신감을 도약과 상행으로 표현할 때, 피아노는 제2전위된  $vii^{\circ}7$ ,  $iii7$ ,  $vi$ ,  $ii$  등의 단화음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또한 오른손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2도 하행 모티브가 나타나는데 이 모티브는 이후의 반주부에서도 계속 등장한다. 연인의 눈빛을 묘사하는 마디7 이후부터는 셈여림도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반복하면서 화자의 감정을 점차 고조시켜 나간다. 마디9에서는 B장조로 잠시 전조되어 아침인 줄 착각하였던 순간을 표현하였고, 마디10에서는 상승하는 선율과 아르페지오가 성악 선율의 마지막 음을 이어받아 나오는데, 마치 환한 빛을 받으며 깨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악보 4-2).

[악보 4-2]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마디3-10

The musical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10.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marked *mp*.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bass line with a '2도 하행 모티브' (2nd degree descending motif) and a treble line with chords. Chord progressions are labeled as I, V<sub>3</sub><sup>4</sup>, I<sub>6</sub>, IV<sub>7</sub>, vii<sub>3</sub><sup>4</sup>, iii<sub>7</sub>, vi, ii, and V.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1-17. The vocal line has a *poco cresc.* marking.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descending motif and includes a section labeled '당김음의 지속적 사용' (continuous use of sustained notes) with a box around the vi ii progression leading to V.

③ b(마디11-17)

b의 성악 선율은 자신이 진심을 담아 전했던 입맞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연인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다. 앞에서 연인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었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자신이 주었던 것을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거짓이었던 연인의 행동과는 달리 자신이 준 입맞춤에는 진심이 담겨있었음을 토로한다. 성악 선율은 순차진행 위주였던 a부분과 다르게 도약 위주의 선율로 바뀌면서 이러한 내용의 변화를 담아낸다. 마디11에서는 3도 도약과 악센트로 'kisses'를 강조한다. 입맞춤을 의미하는 'seals of love'(마디13-14)는 *mf* 위에 긴 음가로 펼쳐지게 하여 입맞춤에 담겨있던 진심을 간절하게 표현한다. 하지만 길게 이어지던 선율은 마디15 이후 8분침표로 인해 짧게 끊어지는데, 차마 말을

이어가기 힘든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성악 선율은 E장조의 으뜸음이 아닌 5음으로 끝나게 하여 마지막 단어인 'vain'(헛되다)의 공허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b의 피아노는 B장조의 I화음으로 시작하였다가 'kisses'에서 갑자기 A장조의 V화음으로 직접전조 한다. 이를 통해 입맞춤이란 단어가 두드러지며, 가사가 자신이 주었던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낸다. 또한 두터운 코드들이 당김음 리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입맞춤을 할 때의 황홀했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지는 마디13-14에서 성악이 간절히 사랑의 봉인을 노래할 때 피아노는 당김음과 하행 음형으로 채워주며 그것을 떠올리는 화자의 슬프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다. 마디14 성악의 'but sealed' 선율이 피아노에서 먼저 나온 후 성악이 이어받고 있으며, 왼손의 베이스 음들은 당김음과 장식음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절망적인 심정을 묘사하였다(악보 4-3).

[악보 4-3]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마디11-17

But my kiss - es bring a - gain Seals of love,

*mf*

*p*

*mf*

(B;) I<sub>7</sub> A; V<sub>7</sub>

but sealed but sealed in vain!

*dim. e poco rit.*

*p riten.*

*pp*

*a tempo tranquillo*

*mp*

*poco rit.*

*riten.*

*pp*

*p espress.*

5음

심장이 내려앉은 절망감 표현

④ 후주(마디17-21)

후주에서는 성악의 마지막 음이 공허하게 울리는 동안 전주 모티브가 또 다시 등장한다. 씩씩한 감정이 담겨있는 전주 모티브는 오른손 중성부에서 상성부로 상승해가다가 마디19에서 성악처럼 B음에 도달한다. 이로써 성악 선율에서 주었던 허무한 감정을 또 한 번 느끼게 하며, 짙은 여운을 남긴다. 후주는 상승한 채로 끝나지 않고 다시 왼손에서 E1의 저음으로 마무리 지으며 여인의 체념하는 듯한 모습, 혹은 눈물 지으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악보 4-4).

[악보 4-4]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 마디17-21

17 > 전주 모티브

vain!

a tempo tranquillo

espress.

pp

ppp

p espress.

morendo.

당김음

8vb--

5.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Hey, ho, the Wind and the Rain*)

1) 시의 내용 및 구조

제5곡은 희곡 『십이야』 5막 1장, 극이 모두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광대 페스테가 홀로 남아 부르는 노래이다. 1연은 어리석은 짓도 쉽게 용서되었던 어린 시절을 묘사한다. 2연은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이 무서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고, 3연에서는 결혼 후 생겨난 책임감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4연은 지금의 위치를 인정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걱정 근심 없던 어린 시절이 지나가버린 데 대한 애도와 삶의 어려움에 대한 체념의 어조가 깔려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sup>39)</sup>

When that I was and a little tiny boy,  
With hey, ho, the wind and the rain,  
A foolish thing was but a toy,  
For the rain it raineth ev'ry day.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어리석은 짓은 그저 장난에 불과했지  
왜냐면 비가 날마다 내렸으니까 말야.

But when I came to man's estate,  
With hey, ho, the wind and the rain,  
'Gainst knaves and thieves men shut  
their gate,  
For the rain it raineth ev'ry day.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사람들은 악당과 도둑들에 맞서 문을 닫아버  
렸지  
왜냐면 비가 날마다 내렸으니까 말야.

But when I came, alas! to wive,  
With hey, ho, the wind and the rain,  
By swaggering could I never thrive,  
For the rain it raineth ev'ry day.

그런데, 아, 마누라가 생겼을 때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허세 떠는 걸로는 잘 살 수가 없었어  
왜냐면 비가 날마다 내렸으니까 말야.

39) 시의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William Shakespeare, 심지영 역, 『십이야』,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226-227; William Shakespeare, 최종철 역, 『셰익스피어 전집 1』, 487-488.

A great while ago the world <u>begun</u> ,	아주 오래 전에 세상은 시작되었지
With hey, ho, the wind and the <u>rain</u> ,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But that's all one, our play is <u>done</u> ,	하지만 그게 다야, 우리 연극은 끝나 버렸어.
And we'll strive, we'll strive to please you	그리고 우린 매일 당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ev'ry <u>day</u> .	애쓰겠지.

시의 구조는 4연 16행으로, 2행은 모든 연에서, 4행은 1-3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후렴구를 이룬다. 1행과 3행은 각각 다른 발음으로 각운을 이루고 있다. 1연의 경우 [ɔɪ]로, 2연은 [ert], 3연은 [áiv], 4연은 [ʌn]으로 구성되었다.

컬터가 셰익스피어 시에서 변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sup>40)</sup> 먼저 각 연의 4행에 나오는 'every'를 'ev'ry'로 축약하였다. 또한 5연으로 이루어진 원래의 시에서 노인 시절을 노래하는 네 번째 연 전체를 과감히 생략하고 4연으로 곡을 구성하였다.

## 2) 곡의 구성 및 분석

컬터는 4연의 시를 A-A'-B-A"의 음악으로 옮겼다. 2행과 4행은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후렴구로, 동일한 선율을 사용하여 음악적으로도 운율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5마디의 전주와 세 번의 간주, 7마디의 긴 후주를 갖는다. 박자는 2/4박자이며 3연에서 3/4박자로 잠시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4박자를 유지한다. 템포는 'Allegretto marcato', ♩=96로 약간 빠르게 지시되었고 곡 중간에 'poco meno mosso', 'piu moderato', 'piu largamente' 등 부분적인 템포 변화가 많다. 조성은 E♭장조이며 B부분에서 b♭ 단조로 전조가 일어난다.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곡의 구성은 [표기과 같다.

40) 가사와 비교한 셰익스피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lliam Shakespeare, *Twelfth Night, or What You Will*,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20-221.

[표 7]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구성

시			곡				
연	구성	내용	구분	구성	마디	조성	박자
1연		어리석은 짓도	A	전주	1-5	E $\flat$ 장조	2/4
	1-2행	쉽게 용서됐던		a	6-10		
	3-4행	어린 시절		b	11-17		
2연		어른이 되어	A'	간주	16-18		
	5-6행	깨달은		a'	18-23		
	7-8행	세상의 무서움		b'	24-30		
3연		결혼 후 생겨난 책임감	B	간주	29-31	c단조-b $\flat$ 단조	2/4-3/4
	9-10행			c	32-36		
	10-11행			d	37-43	b $\flat$ 단조	-2/4
4연		현재 위치를 인정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A~	간주	41-45	b $\flat$ 단조-E $\flat$ 장조	2/4
	13-14행			a''	46-50	E $\flat$ 장조	
	15-16행			b''	51-59		
				후주	57-62		

(1) A부분

A부분은 1연을 노래하며, 어리석은 짓도 쉽게 용서받았던 걱정근심 없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주(마디1-5), a(마디6-10), b(마디11-16)로 이루어져있으며 5마디+5마디+6마디의 불규칙적인 프레이즈 구조를 보인다.

① 전주(마디1-5)

전주는 'ben ritmico'의 지시어로 매우 리드미컬하면서도 *mf*의 강한 셈여림으로 씩씩하고 활기찬 소년 시절의 분위기를 표현한다. 오른손 상성부에는 제2, 3곡에서 사용되었던 ♪ 리듬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다. 이 리듬은 제5곡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쓰여 곡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유지한다. 마디1-2의 오른손 중성부와 왼손은 코드를 연주하는데, 두 번째 박에 악센트로 강세를 주었다. 전주는 이러한 리듬을 통해 이 시를 노래하는 화자, 광대 페스테의 익살스럽고 해학

적인 캐릭터를 묘사한다. 마디3-5에서는 ♩ 리듬이 연속적인 16분음표 선율로 이어지면서 상승과 함께 점점 커졌다가 하행하며 점점 작아져 다이내믹함을 느끼게 한다. 전주는 이처럼 2마디+3마디로 규칙적인 프레이즈 구조를 벗어나고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노래하는 시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5-1).

[악보 5-1]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1-5

Allegretto marcato (♩=96)

mf *ben ritmico.*

E♭ ;

② a(마디6-10)

a의 성악 선율은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노래한다. 전주의 유쾌한 ♩ 리듬을 이어받아 소년 시절의 천진난만함을 표현한다.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의 구절은 4도 음정의 도약을 사용하여 활기차고 기운찬 느낌을 준다(마디 8-9). 이 2마디는 각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로, B부분에서 약간 변형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연에서 동일한 선율을 사용한다.

a의 피아노는 소년 시절을 유쾌하게 노래하는 성악 선율에 당김음을 사용하여 장난스러운 느낌을 더한다(마디6-7). 셈여림은 *mp*로 성악보다 작게 지시하여 많은 음절로 이루어진 가사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헤이, 호’ 노래하는 마디8-9의 후렴구는 도약하는 성악 선율처럼 폴짝거리는 듯한 반주형으로 리듬감

을 더하고 있다. 마디9에서는 마치 성악 선율에 맞장구치듯이 피아노가 프레이즈를 이어받아 한 마디 더 노래한다. 성악의 유쾌한 느낌이 이어지도록 'leggiero'로 가볍게 연주하도록 지시하였다(악보 5-2).

[악보 5-2]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6-10

③ b(마디11-17)

b의 성악 선율은 어리석은 짓을 해도 큰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소년 시절을 노래한다. 마디11에서 선율이 3도, 4도, 5도로 간격을 점점 넓히며 도약하여 가사의 '어리석은 짓'을 묘사한다. 마디12-17은 또 다른 후렴구인 4행을 5마디의 긴 프레이즈로 노래한다. 'rain'과 'day'를 3박자 이상 길게 끌어 그칠 줄 모르고 매일 같이 내리던 비를 묘사한다. 4행의 후렴구는 A'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B와 A"에서는 새로운 선율로 변형된다.

b의 피아노는 제2전위된 반감7화음과 비화성음인 전타음을 통해 '어리석은 짓'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마디11). 마디12에서는 어리석은 짓도 그저 장난처럼 가볍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한 음 한 음 코드로 강조하며 그 시절이 지나가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성악이 고음으로 'rain'을 길게 끄는 동안 피아노는 'ben ritmico'로 a의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를 변형한 선율을 리드미컬하게 연주한다. 이 선율은 점점 크레센도로 커지며 앞으로 향해 나

아가는 느낌을 주어 시간이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표현한다(악보 5-3).

[악보 5-3]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11-17

II 2도 3도 4도 5도 *ten.* *a tempo*

A fool - ish thing was but a toy, For the rain - - -

전타음 *mf* *a tempo*

*ten.* *ben ritmico.*

*vii°3* *vi*

- - - it rain - eth ev - 'ry day.

*giocoso.*

(2) A'부분

A'부분은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화자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어른이 되어 보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지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간주(마디16-18), a'(마디19-23), b'(마디24-29)로 이루어져 있다.

① 간주(마디16-18)

간주는 b의 성악 선율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된다. 전주에 쓰였던 요소들이 간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 리듬과 두 번째 박에 오는 악센트가 사용되었고

여기에 ‘giocososo’의 지시어를 더해 익살스럽고 유쾌한 광대의 모습을 나타낸다. 5마디였던 전주에 비해 3마디로 짧아졌지만 그 안에서도 선율이 상승하도록 하여 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는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였다(악보 5-4).

[악보 5-4]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16-18

② a'(마디19-23)

a'의 성악 선율은 a에서 소년 시절을 *mf*로 씩씩하게 묘사한 것과 달리 섬여림이 *mp*로 줄어들었고 리듬은 8분음표로 단순해졌다. 이는 어른이 되어 보다 차분해진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헤이, 호’ 노래하는 2행의 후렴구는 a와 동일한 선율로 반복된다.

a'의 피아노 성부는 *p*로 성악보다 한 단계 더 작게 시작한다. 성악 선율이 8분음표로 어른이 된 모습을 묘사할 때, 피아노는 오른손에서 4분음표 코드를 테누토로 지그시 눌러 차분함과 무게감을 더한다. ‘헤이, 호’ 노래하는 2행 후렴구의 경우 1연과 반주형은 유사하지만 음역이 좀 더 높아졌다(마디21-22). 성악 선율에 맞장구치듯 피아노가 이어받는 마디23은 a와 다르게 이번에는 staccato로 변화를 주어 활발함을 더하였다. 또한 왼손의 음역이 1옥타브 가량 높아졌고 오른손의 선율도 더 높은 음까지 상승한다. 이처럼 a'의 피아노는 전체적으로 음역이 상승하여 성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표현하였다(악보 5-5).

[악보 5-5]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19-23

음역의 상승

③ b'(마디24-30)

b'의 성악 선율은 사람들이 악당과 도둑들에 맞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걸 보면서 세상의 무서움을 깨달았다고 노래한다. 도약으로 진행했던 b의 선율과 달리 순차적으로上行하였다가 하행하는 선율을 통해 성인으로서 성숙해진 모습을 묘사한다. 매일같이 비가 내렸다고 노래하는 4행의 후렴구는 b와 완전히 동일하게 쓰였다.

피아노는 'knave'(악당)이란 단어에 반감7화음을 놓이게 함으로써 악당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오른손의 상성부와 왼손 베이스 음이 나란히 하행하면서 사람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4행의 후렴구는 b의 선율에 오른손 화성음을 더 추가하거나 8분음표 리듬을 16분음표로 나누는 등의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악보 5-6).

[악보 5-6]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24-30

**완만한 선율**

'Gainst knaves and thieves men shut their gate, For the rain -

it rain - eth ev - 'ry day.

(3) B부분

B부분은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무거워진 책임감을 노래하는 3연에 해당한다. 간주(마디29-31), c(마디32-36), d(마디37-42)로 나누어진다.

① 간주(마디29-31)

간주는 *mf*의 셈여림과 도약 선율로 A'의 간주보다 더 힘찬 느낌을 준다. 오른손 상성부에서 두 음이 4도 간격으로 하행하는데 이 음정은 2행의 후렴구 'hey, ho'에 쓰였던 것으로 신나고 흥겨운 느낌을 준다. 이를 통해 결혼으로 인한 기쁨과 설렘을 표현한다. 마디31에서는 'poco rit.'와 데크레센도로 이내 작아지고 느려져 더 느린 템포로 시작하는 c부분을 예비한다(악보 5-7).

[악보 5-7]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29-31

② c(마디32-36)

c의 성악 선율은 ‘*espress. e poco meno mosso*’(표정을 담아 느려진 템포로)로 결혼으로 아내를 얻게 되었음을 보다 느린 템포 안에서 진지하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선율의 움직임이 훨씬 적어져 B음 주변을 맴돌며 읊조리듯 노래하는 가운데 감탄사인 ‘*alas!*’는 ♩ 리듬으로 탄식하듯 표현하였다. 장조 안에서 밝은 분위기로 노래되었던 2행의 후렴구는 단조로 어두운 분위기로 음정이 변화되었다.

피아노는 마디32에서 V화음을 통해 c단조로 직접전조 한다. 단조로의 변화를 통해 결혼 후 현실을 깨달은 화자의 무거운 마음을 담아낸다. 성악이 읊조리듯 결혼하여 아내가 생겼음을 노래할 때 피아노는 왼손과 오른손이 리듬을 주고받는다. 이때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의 섬세한 지시로 두 번째 박자에 강세가 오도록 하였다. ‘헤이, 호’ 노래하는 2행 후렴구는 성악 선율에서 단조로 분위기가 어두워짐에 맞춰 오른손과 왼손이 4도로 반진행하며 점점 작아지는 새로운 반주형이 등장한다. 4도 도약 음정은 앞에서는 활기찬 느낌을 주었지만 여기서는 i, iv의 단화음의 어두운 색채 위에서 이음줄로 부드럽게 이어져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담아낸다. 마디35-36의 피아노 선율은 *f*와 스타카토로 성악 선율과

상반되는 강한 선율이 나타나며, b b 단조로 전조하여 d부분을 예비한다(악보 5-8).

[악보 5-8]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32-36

32  
*mp e poco meno mosso.* *a tempo*  
 But when I came a - las! to wive, With hey, ho, the wind and the rain; By  
*e poco meno mosso.* *a tempo*  
*mp* *f stacc.*  
 c ; V bb ; V

③ d(마디37-43)

d의 성악 선율은 그 동안 젊은이의 치기로 잘 살아왔지만 가장이 된 후에는 보다 많은 능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노래한다. 허세를 의미하는 ‘swaggering’을 상행하는 선율로 과시하듯 표현한 반면 마디38의 ‘never’는 하행하도록 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 ‘thrive’(번창하다)에서는 선율이 5도로 도약하면서 커져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표현한다. 매일 비가 내렸다는 4행의 후렴구도 앞에 쓰인 선율 대신 새로운 선율로 노래한다. 앞에서는 상행으로 시작하였다면 여기서는 하행으로 시작하고 있고, 두 마디 동안 끝었던 ‘rain’이 한 박자 반으로 짧아졌다. 대신 마지막 단어인 ‘day’를 이 곡에서 가장 긴 5박자로 지속한다.

피아노는 b b 단조의 어두운 색채로 인생의 씩씩한 깨달음을 표현한다. 마디38에서는 박자가 2/4박자에서 3/4박자로 잠시 바뀐다. 이는 화자의 소망이자 목표를 나타내는 ‘thrive’를 충분한 박자로 유지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아노에서는 *sf*로 베이스 음을 강하게 올린 후 5개의 상승하는 음으로 번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sf*와 동시에 페달을 지시하여 베이스의 G음이 풍성하게 성악을 받쳐주도록 하였다. 다음 마디에서는 곧바로 2/4박자로 돌아온다(악보 5-9).

[악보 5-9]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37-43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7-40,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41-43. The vocal line is in the upper staff, and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lower staff. The piano part features a strong bass line with a 'Ped' (pedal) marking and a 'P' (piano) dynamic marking. A box highlights the piano accompaniment in measure 40 with the text '가사의 '번성' 표현' (Expression of 'bursting' in the lyrics).

(4) A"부분

A"부분은 4연에 해당하며, 현재 위치를 받아들이고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간주(마디41-45), a"(마디46-50), b"(마디51-58), 후주(마디 57-62)로 구성된다.

① 간주(마디41-45)

A"의 간주는 5마디로 3번의 간주 중 가장 긴 길이로 되어있다. 이는 뒤에 나

을 a"에서 세상이 시작되는 아주 먼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주 및 간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리듬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마디41에서는 *mf*의 장조 느낌으로, 마디42에서는 *mp*와 단조 느낌으로 같은 선율이 반복되어 머뭇거리는 느낌을 주다가 마디43-45에서 B♭5를 향해 점점 커지며 상승하여 마지막 4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마지막은 *f*와 악센트로 강하게 마무리하되 'pochiss, rit'로 템포를 늦춰 a"의 moderato 템포를 예비한다(악보 5-10).

[악보 5-10]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41-45

Eb; ii    -7

② a"(마디46-50)

a"는 세상이 아주 오래 전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한다. 'Piu moderato'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여유 있게 노래하며 'poco ten.'로 한 음 한 음 정성스럽게 부르도록 지시하였다. 선율은 a의 선율을 그대로 가져오되 가사에 맞게 리듬을 약간 변형시켰다.

피아노 성부 역시 a의 반주형에 약간 변화를 주었다. 왼손의 경우 음역을 한 옥타브 아래로 낮췄고, 오른손은 첫 박의 화음에 음을 추가하고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아르페지오는 먼 과거를 떠올리는 성악 선율에 아련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악보 5-11).

[악보 5-11]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46-50

③ b~(마디51-59)

b~는 광대 페스테가 관객들에게 연극이 끝났음을 알리면서 자신은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맞게 관객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의 위치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체념의 뉘앙스가 담겨있지만 음악적으로는 밝고 유쾌하게 표현하여 해학성을 느낄 수 있다. 마디50-51의 연극이 끝났다고 전하는 부분은 'Piu largamente'(폭 넓게, 보다 느리게)로 선포하듯이 노래한다. 높은 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이 선율은 b부분의 피아노 선율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관객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디53-59는 무려 7마디의 긴 프레임즈를 이룬다. ♪ 리듬으로 속도감 있게 상행하여 최고음인 A♭ 음에 도달한 후 'ev'ry day'(매일)를 긴 음가로 지속하여 화려하게 노래를 마친다.

피아노는 양손 모두 높은 음역에서 짜임새가 두터운 코드로 성악의 선포하는 선율에 힘을 실어주고 폭 넓은 음향으로 채워준다. 오른손 상성부와 베이스음도 성악 선율에 맞춰 순차적으로 하행하고 있다. 마디52의 마지막 음은 mp의 셋여림으로 앞부분과 대조되며 성악과 함께 달려갈 준비를 한다. 이후 오른손은 ♪ 리듬이 순차적으로 상행하면서 점점 커져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간다. 성악이 A♭의 최고음을 노래하는 동안에도 피아노의 선율은 상승을 멈추지 않고 음량을 계속 키워나간다(악보 5-12).

[악보 5-12]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51-59

**b부분 피아노 선율**

*mf* *Piu largamente.* *ten.* *mp* *a tempo* *cresc.* *molto.*

But that's all one, our play is done, And we'll strive, - we'll strive - to please - you

*mf* *Piu largamente.* *ten.* *mp* *a tempo* *cresc.* *molto.*

*f* *ev* *'ry* *day.* *f* *con spirito.* *mf*

④ 후주(마디57-62)

후주는 성악의 마지막 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의 고조되었던 선율을 이어받아 힘차게 시작한다. 앞에서 쪽 상승해온 피아노 선율은 후주에서 가장 높은 E<sub>b</sub> 음에 도달하고 4도, 3도, 2도 간격으로 완만해지며 내려온다. 오른손 중성부의 리듬은 'con spirito' (활기 있게)로 지시하여 마지막까지 유쾌한 에너지를 유지시킨다(마디57-58). 마디59에서부터는 'poco accel.'로 점점 빨라지며 모든 음을 스타카토로 끊어서 연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광대의 모습을 표현하며 마지막 *sf*와 *sff*로 끝나는 두 음은 광대의 인사를 떠올리게 한다(악보 5-13).

[악보 5-13]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 마디57-62

57

day.

*f* *con spirito*

*mf stacc.*

*poco accel.*

*f*

*sf*

*sfz*

8<sup>va</sup>

광대의 인사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쿨터가 셰익스피어 시에 곡을 붙인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를 분석하였다.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는 쿨터의 셰익스피어 시에 대한 이해와 섬세한 작시법, 선율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분석한 결과 5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제1곡 〈더 이상 태양의 뜨거움을 두려워 말라〉는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는 진혼곡이다. 4분음표의 아치형 선율이 2마디의 규칙적인 프레이즈로 나타나며, 반음계적 화성으로 사후 세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제2곡 〈푸른 숲 나무 아래〉는 숲 속에서의 삶을 찬양하는 내용의 밝고 활기찬 곡이다. 16분음표와 8분음표의 경쾌한 리듬(♩♪)이 성악과 피아노 선율에 주요하게 쓰였으며, 4도 병행 음형으로 목가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3곡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소녀라〉는 봄날에 사랑을 나누는 연인의 모습을 묘사한 락스한 분위기의 곡이다. 제2곡에서 사용한 ♩♪리듬이 여기서도 연인과 새의 노랫소리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많은 가운데 피아노에서 다양한 변주가 일어난다. 제4곡 〈그 입술을 가져가세요〉는 가곡집에서 가장 짧은 곡으로, 연인에게 배신당한 여인의 원망과 슬픔이 잘 드러나 있다. 네 음으로 이루어진 짧은 모티브와 당김음, 2도 하행 모티브가 곡 전체에서 사용되며, 공허한 5음으로 끝나는 성악 선율을 피아노에서 이어받아 아련하게 마무리한다. 제5곡 〈헤이, 호, 바람 불고 비 오고〉는 광대의 이야기로, 인생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가 담겨있는 곡이다. 제2, 3곡에 쓰였던 ♩♪리듬이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약박인 두 번째 박에 악센트로 강세가 오게 하여 익살스러운 느낌을 준다. 과장된 표현과 잦은 템포 변화, 폭넓은 셈여림 등으로 연극적이고 해학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던 쿨터 가곡의 일반적인 특징과 비교하였을 때

《5개의 셰익스피어 노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텍스트 선택에 있어 제2곡은 자연, 제3, 4곡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 그가 자연과 사랑의 주제를 선호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제1곡과 제5곡에서처럼 그가 죽음과 인생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켈터는 셰익스피어 시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제1곡은 가사 전달을 위해 축약된 모음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렸고, 제2, 3곡의 경우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였다. 반면 제4, 5곡에서는 특정 구절이나 연을 생략하여 음악적으로 더 효과적인 구성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켈터가 시와 음악의 긴밀한 합일을 이루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가곡집은 분석의 결과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5곡을 엮은 연가곡적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제의 연결에서 잘 드러나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제1곡으로 시작하여 제3곡에서는 삶의 유한함을 드러내며 현재의 사랑에 충실할 것을 전한다. 마지막 제5곡에 이르러서는 인생이란 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는 메시지로 마친다. 즉, 이 가곡집의 주제는 삶이 어려울 지라도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켈터 자신의 인생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생동안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목도했으며, 제1,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 병약한 체질,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고통에 찬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평생 가난한 음악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유대인들의 도피를 돕는 등 헌신적인 삶의 태도를 보였다. 음악에 있어서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였고, 이 가곡집의 주제에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형식 및 구조에 있어 제1곡은 AA'BC, 제2곡은 AA', 제3, 5곡은 AA'BA'', 제4곡은 A로 각각의 시 구조를 반영하여 음악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불규칙적인 프레이즈 구조가 나타나는데, 제2곡의 경우 8마디로 이루

어진 b부분을 3+5마디로 구성하였고 제4곡은 A와 B, 후주가 각각 8+7+5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켈터는 큰 틀 안에서는 균형 잡힌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안에서는 자유로운 프레이즈 구조로 가사를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율은 소박하지만 서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제1, 4곡은 4분음표와 8분음표의 단순한 리듬을 위주로 가사의 서정적이고 슬픈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제2, 3, 5곡은 밝고 활기찬 느낌의 ♪ 리듬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 시의 분위기에 맞게 각각 다른 느낌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변박을 하거나, 단어의 강세에 맞게 음정과 리듬을 배치한 점, 각운에 해당하는 단어들에게는 긴 음가를 부여한 점 등에서 시의 운율과 강세를 세심히 담아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성 및 화성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켈터는 이 가곡집에서도 3:7화음 중심으로 깨끗한 울림의 화성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시의 의미나 분위기에 따라 감7화음, 부속화음, 비화성음, 지속음 등으로 다양한 화성적 색채를 더하였으며, 가사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조성적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어 음악적 대비를 이루는 제1, 3, 5곡의 B부분에서 잦은 전조가 일어난다.

본 논문에서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던 반주부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특징들이 잘 나타나있다. 첫째, 다양한 반주형의 사용이다. 제1곡은 B부분에서 등장하는 천둥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저음역에서 양손이 옥타브 진행을 하는 독특한 반주형이 나타나며, 제2곡에서는 ‘이리 오라’고 하는 성악 선율에 맞춰 피아노가 반 박자 뒤에서 성악을 따라가는 듯한 반주형이 사용되었다. 제3곡의 경우 연인이 걸어가는 부분에서는 8분음표 리듬의 가벼운 발걸음을 나타내는 반주형이 쓰이다가 연인이 누워있는 장면에서는 음역을 낮춘 레가토 선율로 이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전체적으로 켈터는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반주형을 통해 가사를 생생히 묘사하고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독자적 선율의 사용이다. 성악 선율에 쓰이지 않은 피아노만의 선율이 주로 전주와 간주, 후주에 등장하며 노래에 앞서 시의 내용을 암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1곡 전주에서는 애도를 표현하는 하행 선율이 등장하고, 이 선율은 간주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등장하다가 마지막 C부분 간주에서는 역행하여 상행선율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애도의 감정이 죽은 이의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됨을 나타낸다. 제3곡의 경우, 전주에 따스한 봄날의 분위기를 담은 긴 레가토 선율이 등장하여 연인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셋째, 성악과 피아노 간의 대화이다. 제2곡에서 이 곡의 주요한 요소인 ♩ 리듬을 성악 성부와 피아노가 주고받으며, 제3곡 B부분에서는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두 성부에 번갈아 나오면서 마치 두 마리의 새가 지저귀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제5곡의 a부분에서 'rain'으로 끝난 성악 선율을 피아노가 넘겨받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처 끝내지 못한 성악의 프레이즈를 피아노에서 마무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반주부가 가창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가곡집 전체에서 발견되며, 이를 통해 켈터가 피아노 파트를 단순한 반주 역할이 아닌 시의 표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중요한 성부로 작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켈터가 뛰어난 문학적 이해와 음악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셰익스피어의 시를 음악으로 옮겼는지 알 수 있었다. 자연과 사랑을 주제로 하되 무거운 소재의 텍스트도 사용한 점, 균형 잡힌 형식과 자유로운 프레이징 구성, 서정적이고 소박한 선율, 다채로운 화성이 그의 가곡에서 보여진다. 특히 그의 가곡 반주부에 나타나는 다양한 반주형의 사용, 독자적 선율의 사용, 성악과 피아노 간의 대화 등의 특징이 그가 가곡 작곡가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를 드러낸다.

## 참 고 문 헌

### 1. 사전 및 단행본

- 이대석. 『셰익스피어 극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 한국셰익스피어학회. 『셰익스피어 연극 사전』. 서울: 동인, 2005.
- 신정옥. 『셰익스피어 한국에 오다』. 서울: 백산출판사, 1998.
- 송무경, 안소영, 이내선. 『새롭게 배우는 음악이론』. 서울: 심설당, 2011.
- Langfield, Valerie. *ROGER QUILTER: His Life and Music*.  
Woodbridge: Boydell Press, 2002.
- "Quilter, Roger", *Grove Music Online*,  
<https://doi.org/10.1093/gmo/9781561592630.article.22702/>  
[5월 11일 접속].
- Kimball, Carol, 채은희 번역. 『Song-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하권』. 서울: 형설출판사, 2004.
- Shakespeare, William. 이윤주 번역. 『종으실 대로』.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 최종철 번역. 『셰익스피어 전집 1』. 서울: 민음사, 2014.
- 신정옥 번역. 『셰익스피어 전집 24 심벨린』. 도서출판 전예원,  
2002.
- 김종환 번역. 『자에는 자로』.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 심지영 번역. 『십이야』.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 *Cymbelin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As You Like It*.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 *Measure for measur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 *Twelfth Night, or What You Will*.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2. 학술지 및 학위 논문

- 구보람. “셰익스피어 시에 의한 로저 퀴터와 에이미 비치의 가곡 비교 연구: 〈O mistress mine〉과 〈Take, o take those lips away〉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나. “Roger Quilter의 가곡에 대한 연구-Seven Elizabethan Lyrics, Op.12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진영. “Roger Quilger의 가곡 〈Three Pastoral Songs, Op.22〉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남희예.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문새롬. “Roger Quilter의 가곡 연구 〈Three Shakespeare Songs, Op.6〉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선희.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용선.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진남수. “십이야의 광대, 페스테의 인물 특성 연구.” 『연극학보』 28 (2001), 153-227.
- 최미라. “로저 퀴터의 연가곡집 《줄리아에게》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최현민. “Roger Quilter의 가곡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최현진. “Roger Quilter의 〈Five Shakespeare Songs, Op.23〉에 관한 연구: 연주자 관점에서의 음악적 해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3. 악보 및 음반

Quilter, Roger. *Five Shakespeare Songs*. Boosey & Hawkes, 1921.

Quilter, Roger. *Love's Minstrels*. Phillippe Sly & Michael McMahon. Groupe Analekta, Inc., 2014

## ABSTRACT

### A Study on *Five Shakespeare Songs, Op.23*

by Roger Quilter

Park, Hyun Ju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talks about a study of *Five Shakespeare Songs, Op.23* by Roger Quilter(1877-1953). Quilter is a composer of British songs who was active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He composed 112 songs and is known as Frankfurt group, inherited a traditional British ballad.

The Song Cycle *Five Shakespeare Songs* was composed based on songs from William Shakespeare(1564-1616)'s plays. This research categorized Quilter's lifetime and his song style and analyzes *Five Shakespeare Songs* focused on the accompaniment.

The first song *Fear no more the heat o' the Sun* is a requiem and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world. *Under the Greenwood Tree* is a song that praises the life of the forest. It describes those who enjoy living in nature by using rhythm combined with 16<sup>th</sup> and 8<sup>th</sup> notes. *It was a Lover and his Lass* depicts lovers on a warm spring day and plays its own melody on the piano, adding lyricity to the simple rhythm of the vocal part. *Take, O take those lips*

*away* is a song that contains the sorrow of a woman betrayed by her lover and dominantly uses short motive and syncopation. *Hey, ho, the Wind and the Rain* is a clown's song that talks about the difficulties of life, and its theatrical and humorous aspect stands out with humorous rhythm, frequent tempo changes, and wide calculation.

To sum up the characteristics of his song, he preferred the theme of nature and love in selecting text first but also used a rather heavy subject like death and life. The poem was used by modification rather than by use as it is. The musical form and phrasing structure reflects the structure of poetry. Melodies are simple but lyrical, and closely follows the rhythm and strength of the poem.

The piano part uses various accompaniments that reflect the content or atmosphere of the poem. Also, it uses its own melody to suggest the lyrics and create an atmosphere. Finally, there are conversations between the vocal and piano parts.

Through this work, we can look at the excellent composing ability of Quilter, which delicately captures the musicality and meaning of Shakespeare's poetry, and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companiment reveal that he composed music by attaching equal importance to vocal music and piano vocal parts, respectively.